

코스피	코스닥
5084.85	1082.59
(+135.26)	(+18.18)
금리 (미국 3년)	환율 (원/달러)
3.094	1444.55
(-0.002)	(+3.95)



美 “관세 다시 25%” 靑 “차분하게 대응”

트럼프 “韓, 무역합의 비준 안해”
청와대, 대미통상현안 회의 열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상황 점검

올해 들어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를 향해 관세 위협을 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을 향해 관세를 25% 수준으로 다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정청은 27일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바빠 움직였다. <관련기사 3면, 6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배석했으며, 잠수함 수주 지

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법안은 ‘관세합의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이다. 국회에 같은 이름이 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으로 향해 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내달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 25% 인상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 데 대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보면 국회는 2월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 심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설 자금 39조 투입… 먹거리 물가 관리”

구윤철 부총리, 설 민생안정대책
배추·사과 등 성수품 27만t 공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중점 관리에 나선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t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 39조3000억원도 투입한다. 특히 910억원을 들여 배추·무·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대체적으로 2.1%로 안정적으로 예상되지만 생활물가 어려움이 예상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생활물가 중

에서 먹거리 가격이 높아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보면, 정부는 우선 배추·무·사과·배·소·돼지·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을 공급한다. 이는 평시 공급 규모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계란의 경우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설 이전까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국내 계란 유통 단체와의 협의회도 병행한다.

특히 정부 할인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배추·무·고등어 등 성수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스피 종가기준 첫 5000 돌파



코스피가 전 거래일(4949.59)보다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장을 마감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홀보관에서 직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64.41)보다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에 거래를 마쳤다. (관련기사 4면) /뉴시스

한화, 철강·AI 등 캐나다 기업 5곳과 맞손

60조 잠수함 수주 전력투구

한화오션-‘철강업체’ 알고마 스틸
3650억 출연, 현지 강제공장 건설
HD현대, 수조원대 산업협력안 제시

한화그룹과 HD현대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겨냥해 철강·인공지능(AI)·우주·조선·에너지 등 전 산업을 아우르는 대규모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원팀 코리아’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특사단이 동행한 가운데 현지 핵심 산업과의 투자·기술 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캐나다가 중시하는 절충교역과 산업 참여 확대 요구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에서 캐나다 철강·AI·우주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최대 철강업체 알고마 스틸과 MOU를 맺고,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제로 현지 강제 공장 건설과

잠수함 건조·정비(MRO) 인프라에 활용될 철강 제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3억4500만 캐나다달러(약 3650억원)를 출연할 계획이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캐나다 유니콘 AI 기업 코히어와 3자 MOU를 체결해 인공지능 기술 협력에도 나섰다. 코히어의 대형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모델(LMM)을 기반으로 생산계획, 설계, 제조 등 조선산업 전반과 잠수함 시스템 통합·운용에 적용 가능한 특화 AI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우주·위성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한화시스템은 캐나다 위성통신 기업 텔레셋과 저궤도(LEO) 위성통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통신위성 제조 및 위성단말 개발 역량을 텔레셋의 위성망 운용·설계 기술과 결합해 차세대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한국 ‘군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텔레셋은 올해까지 198기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립 제닝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왼쪽부터),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 이반 장 코히어 공동 창업자,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빅터 피델리 온타리오 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이와 함께 한화시스템은 캐나다 우주 기업 MDA 스페이스와 방산·안보 목적의 위성통신 및 우주 기술 협력 MOU를, 전자광학 기업 PV 랩스와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 기술 고도화를 위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 한화시스템은 첨단 방산전자 및 우주 시스템 분야 전문성을 MDA 스페이스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정의 위성(SDS) 플랫폼 ‘오로라’와 결합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으로, 여기에는 잠수함 작전과 연계한 보안 통신과 데이터 복원력, 지휘·통제 기능도 포함된다.

HD현대도 수조원대 산업 협력안을 제시하며 총력전에 가세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잠수함 MRO 역량을 앞세워 캐나다가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용·정비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지 조선소에 합정·잠수함 기술과 선박 건조 노하우를 이전해 캐나다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캐나다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선·제조업은 물론 AI·바이오 등 첨단 분야까지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하며 양국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HD현대오일뱅크를 중심으로 캐나다 원유 업체와 협력해 사업 기간 동안 수조원 규모의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병행한다.

한화와 HD현대의 산업 협력안이 실행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與과방위 “박장법, 계엄 보도·편성 준비 전달… 사퇴하라” /사진 뉴시스
▲여야, 29일 민생법안 처리 시도…필법법 개정 가능성도

▲국힘 외통위 “정부여당, 대미투자 협의과정 공개하라…국회 검증절차 거부”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당론 발의 “노사관계 법적 안정성 제고”

▲與, 트럼프 ‘관세인상’ 예고에 “특별법 협의 중…정부와 긴밀협조”
▲진보 野 4당, 공동 의총…“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이룩”

K-기업 해외영토 확장

남부발전, '루틸 BESS' 착공 글로벌 에너지 사업 본궤도

HD현대일렉트릭 등 '팀 코리아' 활약
배터리 밸류체인 수출 대표사례 평가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MWh 급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에 착수하며 북미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남부발전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MWh 규모 '루틸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체결한 EPC(설계·기재 조달·시공) 계약의 후속 절차다. 착공식에는 남부발전 박영철 경영기획부사장을 비롯해 공동 투자자인 알파자산운용, KBI그룹, EPC를 담당하는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들이 참석해 '팀 코리아(Team Korea)' 협력 체계를 재확인했다.

'루틸 BESS'는 남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사업이자, 대용량 BESS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프로젝트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알파자산운용, KBI그룹과 공동 투자 형태로 추진된다. 전력 가격이 낮을 때 저장한 전기를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하는 '에너지 차이거래'는 물론, 텍사스 전력망의 주파수와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계통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1억2000만 달러(약 1600억원) 규모다.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시공, 금융 조달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업의 기술과 자본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K-배터리 밸류체인' 수출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사용되는 배터리 모델은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J



현지시간 23일, 미국 텍사스 '루틸 BESS'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준혁 알파자산운용대표,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 최준석 KBI 전무, 강봉주 HD현대일렉트릭 전무. /남부발전

F2 모델이다.

사업지가 위치한 텍사스주는 AI(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BESS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시장 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이번 루틸 BESS 사업은 남부발전이 가스복합 발전 중심에서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원팀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저력을 바탕으로 K-배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북미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포스코퓨처엠, 팩토리얼 투자 전고체 배터리시장 본격 진출

대규모 투자로 시장 성장세 선제대응 나서
실리콘 등 소재 포트폴리오 지속 확대 방침

포스코퓨처엠이 미래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전고체 배터리 업체 팩토리얼에 투자하며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팩토리얼과 투자 계약을 맺고 투자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스코퓨처엠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팩토리얼은 고품질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배터리 제조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 흥영준 연구소장은 "양사는 지속적이고 긴밀한 파트너십 속에 소재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며 "한층 발전된 파트너십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시장 개화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팩토리얼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전고체 배터리 업체 선도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팩토리얼의 전고체 배터리 플랫폼 '솔스티스(Solstice)'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유럽·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미 팩토리얼과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다수 소재사 가운데 출력 특성 등 품질 경쟁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이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소재는 자율주행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뿐 아니라 휴머노이드와 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포스코퓨처엠은 전고체 배터리에 최적화된 소재 설계 및 코팅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과 실리콘-리튬메탈 음극재 등 전고체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



포스코퓨처엠 포항 양극재 공장 전경. /포스코퓨처엠

SK이노 E&S, 호주 천연가스 공급망 확보

바로사 가스전 자원개발 사업 결실
20년간 연간 약 130만t LNG 확보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첫 LNG 카고로 선적하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결실을 맺었다. 국내 민간 기업이 자원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LNG 생산과 선적까지 전 과정을 완주한 첫

사례다.

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다윈(Darwin) LNG터미널로 운송돼 첫 LNG 카고 선적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서부 해안에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가스전으로, SK이노베이션 E&S가

지분 37.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산토스(Santos)와 일본 제라(JERA)가 각각 50%, 12.5%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가스전 매장량 평가부터 인허가, 해상 및 육상 설비 건설까지 전 과정에 총 16억달러(약 2조원)가 투입됐다.

이번 생산 개시로 SK이노베이션 E&S는 향후 20년간 연간 약 130만 톤의

LNG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국내 연간 LNG 도입량의 약 3%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국제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커진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규 LNG터미널을 건설하는 대신 바로사 가스전 인근의 다윈 LNG터미널 설비를 개조해 재 활용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방식을 적용해 투자비를 크게 절감했다. 중동이나 미국 대비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에서 가스를 도입해 수출 기간

을 약 10일로 단축한 점도 물류비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바로사 가스전의 첫 LNG 생산은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도전해 이뤄낸 성과"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국내 자원안보 확립에 기여하고, SK이노베이션 E&S의 사업기반을 공고히 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경협, '3차 한국-캐나다 CEO 대화' 개최

조선·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 모색

한국과 캐나다 주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전략 산업분야(조선·방산, 에너지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캐나다기업연합회(BCC)와 함께 '제3차 한국-캐나다 CEO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필립 제닝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과 빅터

피렐리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양국 정부 인사와 고위급 기업인이 참여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단순한 교역 파트너가 아닌 산업과 안보,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방위산업, 핵심광물, 에너지를 양국 파트너십의 3대 핵심 축으로 꼽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이미 캐나다를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간 협력 확대가 공급망 안정성 강화, 상호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CEO 대화에는 양국 정부인사와 주요 기업인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창범 부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손재일 한화시스템 사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정무경 고려아연사장, 이현수 LIG넥스원사장,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사장, 구본승 KTE 사장, 이혁재 LG에너지솔루션 북미총괄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골디 하ighter BCC CEO와 BCC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두 공동위원장인 글로벌 금융그룹인 선라이프파이낸셜의 케빈 스트레인 CEO와 루츠(소비제)의 메간 로치 CEO를 비롯해 CAE(항공우주), 에어 캐나다(항공), 클린 그리드 아틀란틱(에너지), 해치(건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이 26일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국-캐나다 CEO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필립 제닝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과 빅터 피렐리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양국 정부 인사와 고위급 기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팅)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CEO들이 함께 했다.

한경협 측은 "이번 행사는 양국 정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전략적 공간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한미 무역합의 불이행”… ‘국회승인’ 지연에 대미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산업장관·통상본부장 긴급 방미

트럼프, 관세 25% 재인상 거론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계류 변수
상무·USTR 면담추진, 협의 국면
정부, 합의 이행 강조 ‘총력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인하했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미국에 보내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참석했고, 회의 결과에 따라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장관은 유선으로,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6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캐나다 조기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등 정부의 캐나다 방산 협력을 지원을 위해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니크 미 상무장관과 관련 협의에 나선다. 여 본부장도 곧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방문지와 일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

셜에 한국 정부가 한미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등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세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

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가 문제 삼은 ‘국회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 절차,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등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과 11월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자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지만, 한국 측의 입법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당초 기대보다 더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해왔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올해 안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화 약세와 투자 프로젝트 선정 지연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미 투자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가 관세 압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측도 대미 투자 약속을 거두지 않은 만큼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신호라기보다 협상력을 높이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로서는 마스가(MASGA) 3500억달러 조선 분야 투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건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이번 관세 압박이 협상 원점 회귀보다는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카드라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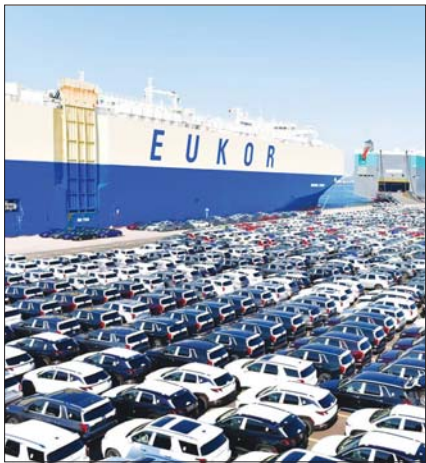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車업계, ‘비용 쇼크’ 경고등… 가격·생산·투자전략 재조정 ‘불가피’

현대차·기아, 관세 부담 연 8조 우려
한국GM도 타격, 철수설 재점화 가능
업계 “정부 협상 결과에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현대차·기아가 25%의 미국 자동차 관세로 지난해 2, 3분기에만 총 4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을 고려하면 상호 관세에 따른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26일 완성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관세 인상 표명을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

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북미 수출 물량은 119만6862대에 달했다. 한국GM은 44만6784대, 르노코리아는 6242대를 북미에 수출했다.

자동차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2, 3분기 관세 여파로 4조6000억원(현대차 2조6000억원·기아 2조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손실을 합치면 총 관세 비용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GM도 지난해 관세 여파로 약 2조9000억원의 관세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관세

영향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관세 25% 인상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자동차 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더해 가격 전략과 생산·투자 계획 전반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할 가능성이 커 관세 인상의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발간한 자동차 산업점검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 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 원을 넘기

고, 영업이익률도 6.3%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도 직영정비센터 폐쇄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철수설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간 진행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올해 경영 계획을 15% 관세를 전제로 수립한 만큼 관세가 인상될 경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제약업계 “당장 실현 가능성 낮아”… 현지생산 등으로 리스크 차단

셀트리온, 美 뉴저지 생산시설 확보
2년치 현지재고로 공급 공백 최소화
SK바이오팜, 푸에르토리코 CMO 확보
기술수출·미국산 원료 적용 사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언급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25% 관세가 현실화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임과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최대 의약품 수출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 상호관세가 크게 오르게 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업계는 의약품에 당장 25%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아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번 발언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일 뿐, 실제 25% 관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이미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이 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확보해 모든 관세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탈피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미국 생산시설에서 현지 판매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미 미국 현지에 입고된 2

년치 공급 물량을 통해 관세 영향 없이 제품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며 “어떠한 관세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바이오팜 역시 추후 진행상황은 예의주시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기존 캐나다(USMCA)에 추가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위탁생산(CMO)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관세 및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왔다”며 “특히 푸에르토리코 생산을 작년년부터 시작하여 즉각적인 현지 대응 체계를 구축한 만큼 미국 현지 생산

기지 확보와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를 판매 중인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경우에도 기술수출로 완제의약품 수출이 아니어서 사실상 영향은 거의 없다”며 “우선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수출 중인 GC녹십자는 “알리글로는 미국 내 혈액법에 따라 ABO 플라스마에서 채장된 100% 미국산 혈장을 사용해 생산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수입의 상호관세 규제 행정명령에 따르면 완제품 구성물 중 미국산 원료의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비(非)미국산 원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KOSPI 5,084.85 KOSDAQ 1,082.59

▲ 투자·창업 환경 정비하고 ‘6000피’ 도약 3차 상법개정으로 ‘韓 엔비디아’ 키운다

코스피 5000시대

④ 제도·구조의 변화

27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오천피’(5084.85)를 찍었다. 5000에 안착한 코스피가 ‘6000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전문가들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한국의 산업구조상 실적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경쟁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는 것, 혁신을 가로막는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것, 이런 경제의 기본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3차 상법개정 등 지속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거래소, 코스닥 상장 지원 위해
산업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심사

까다로운 기술특례상장 인식 여전
창업가, ‘자금 확보’ 가장 큰 난관

대기업은 노란봉투법·배임죄 등 우려

◆ 기업 투자 늘릴 당근, 코스피 6000 초석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 3개만 있다면 ‘코스피 7000’도 거뜰할 것이라 하지만 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않다”며 “증시 부양의 근간이 기업 실적이라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벤처의 생태계를 키워 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판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2023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59.1%를 차지하는 490만2489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기업은 97만8847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였다. 반면, 창업기업 매출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34.4%를 차지하는 113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인공지능(AI),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과세 리스크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불소급 원칙* 적용)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의무	상법적용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의무
과거 취득분도 자본거래 인정	세법적용	과거 취득분 자본거래 불인정
과세이연분 비과세 전환 가능성	가법인 영향	과세이연 특례 상실 및 법인세 부과
세금부담 없음	재무적 결과	법인세 즉시 납부

*불소급 원칙: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령의 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자료/대선증권 리서치센터

능(AI) 등의 등장으로 창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기술특례상장(재무 상태 좋지 않아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주식 상장)은 그림의 떡과 같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선뜻 나서는 모험자본이나 창업자들을 찾기 쉽지 않다”라며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스타트업도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창업가들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금 확보 어려움’(53.7%)을 지적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등에 발목에 잡힐까 두려워한다.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코스피 5000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현대자동차 사례가 단적인 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2일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전환 배치 등 경영상 결정에 노조 동의를 강제한 노란봉투법 보완 등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아틀라스 시대”에 걸맞은 노사 상생 문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입법을 제때 실행하지 못하면 AI 패권 경쟁에서 영영 낙오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배임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는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배임죄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폐지 논의는 진전이 없다.

◆ 3차상법개정안, 기업과 시장 모두 살릴 해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3차 상법개정이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증시에 독일까 약일까.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지난해 4월 새정부에 7가지의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제안했는데, 아직 (소액주주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회사 상장의 원칙 금지와 예외시 모회사 주주 보호,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때 공정가치로 평가, 모든 상장사에 밸류업계획 발표 및 실천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제 투자자들은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 및 기업에 속아왔다는 불신의 벽이 매우 높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히 지속해서 한

국이 투자자 보호가 되는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성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3차 상법개정은 ‘발행주식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10년간 코스피 상장기업의 합계 주식 수가 연평균 약 2%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연평균 10.5% 성장해,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이 순이익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 3차 상법개정 추진 공감대
주가 누르기·중복상장 방지 논의

韓, 투자자 보호 인식 심어줘야
제도 변화로 ROE 개선 등 유도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무력화”

그래서 많은 기업이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고 있다. 미국의 애플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체 주식 수의 약 39%에 달하는 100억주 이상을 매입해 소각했다. 이 기간 애플의 주가는 약 10배 이상 상승했고, EPS는 연평균 15.7% 성장했다.

반면, 기업들은 “정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kova@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실적발표 앞두고 80만원 찍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80만원을 찍었다. 삼성전자는 ‘16만전자’(주가 16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일대비 8.70% 오른 80만 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4.87% 상승한 15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이날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은 “선주문이 밀려들며 고객사들은 1년 전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해 공급자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실적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D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120%와 90%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 이익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도 장밋빛 기대감이 커졌다. 이날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3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한 수치다. 2분기 영업이익 역시 39조원으로 전년 대비 7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AI 시대 전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與 “청문회 때문에 심의 못해” 野 “협상 전 과정 공개하라”

美 관세인상 폭탄 맞은 정치권

민주 “정상적 절차 따라 진행 중”
국힘, 국회 긴급 현안질의 제안
외통위·산자위 등 전체회의 소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하자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여당은 한미통상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상적인 국회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재인상 조치가 의아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통상협상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며 정쟁화하려는 모습이다.

◆與 재경위 간사 “정상적 입법 절차 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와 설 민생 현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예정했지만, 관세 재인상 사태에 정부로부터 관련한 보고도 함께 들었다.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 재인상의 배경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한미투자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 작년 11월말에 특별법이 발의됐고 12월에 개인 발의로 법안이 4건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의원들과 ‘한미 간 관세협상’ 관련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1월 재경위 차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법안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작년 12월은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어서 12월과 1월은 일종의 숙려기간이었다”면서 “2월 달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정 간사는 “정부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월달에 상정해서 통과해달라는 요청이 오늘 보고서에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게 국회는 정부가 2월달 심의·상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해당 법안을 의도

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한데에서 온 것 아닌가”라며 “실제로 발표가 있기 전에 (미국 측에서) 실무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다”고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외교부-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신참고인으로 하는 무역합의 성실이 행 촉구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野 “협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 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을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관세가 소급 인하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안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취약구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발목잡기’로 매도해 왔다”며 “합리적인 우려와 경고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느긋한 모습만 보여 왔다. 오늘

의 사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산자위도 김경관 산업부 장관의 캐나다·미국 출장이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신학 산업부 1차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특별법 처리 지연이 관세 재인상의 이유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한미관세협상이라든가 대미투자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식이 다를 뿐이지,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모두가 수용하고 용인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국 측이 한국 입법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문화가 달라서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했고, 통상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이상 소요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도 6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정부가 설명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 본부장이 다보스포럼에서 미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미 의회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나온 적 없었다고 한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장동혁 퇴원 후 한동훈 징계 처리 ‘골몰’

국힘 소장파, 징계 재고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 후 나흘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징계 처리를 두고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의 8일간의 단식 농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 최고위 의결 여부는 일단 보류되게 됐지만, 지난 주말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 수만명이 여의도 일대에 운집해 제명 징계 반대 집회를 벌이며 두 사람을 둘러싼 당 내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지

만, 한 전 대표는 징계 결과를 짜 맞추는 중앙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날(26일)엔 친한(친한동훈) 정치인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중앙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소식을 접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 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림개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전날 의총에선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의총에 참여했던 원내당협위원장들이 한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가자,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의총장을 나갔고, 이 행위를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적했다고 한다.

소장과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재고를 요청하고 한 전 대표에겐 지지자들의 집회 중단을 요청했다. 이성권 대안과미래 간사는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당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 최고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윤리위 결정을 재고하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고 있다. /뉴시스

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31일까지 사회장으로 엄수

출장 중 호흡곤란… 향년 74세
상임 장례위원장에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7일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을 영접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장례를 27~31일까지 사회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신분으로 아태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장을 떠났던 이 전 총리는 이튿날 건강에 이상을 느껴 귀국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에서 이송됐다. 이 전 총리는 병원에 도

착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지난 25일 향년 74세에 별세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숨졌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이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는다.

대통령 정부특보인 조정식 의원이 상임 집행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는다. /박태홍 기자

“비정상적 부동산 집중 바로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당장의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언급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과 맞물려, ‘자산의 부동산 집중’ 완화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는 5월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곳곳하

게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데 대해 주식 시장 정상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주식 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GENIE TV

디즈니+ 모든G

실시간 채널, 디즈니+, VOD, 매주 최신 영화 업데이트까지

이거 하나면
다 되G

디즈니+ 모든G 출시 프로모션 | '26.1.31.까지 가입 시 월 요금 19,900원!

지니TV디즈니+ 모든G 월이용료 21,500원(부가세포함, 인터넷+IPTV 결합 및 3년 약정 기준) / 지니TV디즈니+ 모든G 출시프로모션: 25.10.17~26.1.31까지 가입 시 월 19,900원(부가세포함, 3년 약정 결합 기준, 요금제 유지 시 해지 전까지 지속 제공) / 디즈니+ 스탠다드 멤버십 제공 / 안드로이드 TVOS 기반의 최신형 셋톱박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셋톱박스 변경 필요 시 셋톱박스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음 / OTT 제휴형 요금제의 경우, 전용 요금제 가입 후 각 OTT 서비스 이용을 위한 OTT 계정의 등록 절차 필요 / 지니TV디즈니+ 모든G 상품 가입 후 이용 중 프로모션 대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할인은 중단되며 별도의 할인 반환금 없음 / 자세한 사항은 KTOOM 참조



車 손해율 등 수익성 관리 과제… AI 전환, 체감 성과로 연결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KB손해보험

작년 보험손익 하락, 투자이익 방어
고객 최우선 경영·질적 성장 등
미래성장 위한 6대 어젠다 제시
DT조직 'AI데이터본부' 중심 개편

KB손해보험이 2026년 상반기 경영 전략회의에서 '정교한 수익성 관리'와 '인공지능(AI) 기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자동차보험 적자전환 등 본업의 변동성이 커진 환경을 전제로, 손해율을 관리하는 정밀도를 높이고 AI를 업무·영업 전 과정에 확산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정교한 수익성 관리' 출발점

KB손해보험의 2026년 전략이 성장보다 '안정성'에 가까운 이유는 숫자에서 먼저 엿보인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K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7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



KB손해보험 사옥과 구본욱 사장. /KB손해보험

가했지만, 보험손익은 6559억원으로 25.9% 감소했다. 반면 투자손익은 3942억원으로 173.4% 급증하며 수익을 방어했다. 본업(보험) 둔화를 투자 성과가 완충한 구조다.

특히 자동차보험이 부담 요인으로 재 부상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은 442억원 손실로 적자전환했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85.4%로 전년 대비 4.1%p 포인트(p) 상승했다. 전반 손해율 역시 3분기 기준 81.6%로 1.5%p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어진 가운데 정비비가 상승과 사고 비용 증가가 겹치며 자동차보험 손익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환경에서 손해율 변동성을 낮추는 정교한 언더라이팅과 가격·상품·보상 체계의 재정렬이 2026년 실행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자본 여력은 '관리 과제'로 제시된다. 3분기 말 기준 CSM(보험계약마진)은 9조3939억원, K-ICS(지급여력) 비율은 191.8%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자본 규제 강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겹치는 만큼, 손해율 변동성 축소와 자본·유동성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투트랙'이 불가피해졌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정

교한 수익성 관리와 AI 기반 성과 창출을 직접 짚었다.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익 체력의 '질'을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 6대 어젠다… 실행력은 조직 재편

KB손해보험은 올해 전략회의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6대 핵심 어젠다를 제시했다. ▲고객 최우선 경영 ▲질적 성장 기반 이익 체력 확보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AI 기반 고객경험 혁신 및 밸류체인 효율화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한 보상·제도 강화 ▲AI 시대에 부합하는 일하는 방식 전환이 골자다.

구본욱 사장은 "위기 우려보다 시장 재편 속 기회와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고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6대 어젠다는 방향에 그치지 않고 '방법'까지 포함한다. 고객 최우선은 소비자보호·내부통제·현장 품질로 연결되고, 질적 성장은 손해율·사업비·자본 효율의 동시 관리로 구체화된다.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AI 기반 밸류체인

효율화가 결합되면, 자동차·장기·일반 등 전 영역에서 '수익성 관리의 정밀도'를 실제로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는지가 2026년 성적표를 좌우하게 된다.

AI '실행력'은 조직 설계에서도 드러난다. KB손해보험은 최근 조직 재편에서 디지털전환(DT) 조직을 'AI데이터본부' 중심으로 재정렬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해 콜센터 조직을 AI 데이터본부 산하로 편제하는 등 AI 전환의 실행 구조를 강화했다. 소비자보호 조직 하위에 고객경험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고객 중심 컨트롤타워도 보강했다.

결국 손해율 변동성을 정교한 수익성 관리로 낮추고, AI를 고객 경험과 밸류체인 효율화의 체감 성과로 연결해 이익 체력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구본욱 사장은 이 과정을 '명작의 완성 과정'에 비유해 "준비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손해보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명작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대출·송금·환전에 자산관리까지

은행, 특화서비스 개발… 외국인 고객 모신다

주요 은행들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특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장기 체류자 비중이 5%를 넘기며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송금·환전·자산관리 등 금융 서비스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고객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말 기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273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약 5.3%에 해당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비중은 지난 2024년 말 처음으로 5%를 넘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한국도 '다문화사회'의 초입에 진입한 셈이다.

한국과 인구·경제 규모 등에서 비슷한 수준인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외국인 인구 비중은 10% 안팎이다. 저출생 및 고령화로 노동력 수요가 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유입된 영향이다. 한국도 농업·공업 노동력 수요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어, 수년 내에 유럽 주요국과 유사하게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내국인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반면,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고객은 잠재력이 높은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어서다.

외국인 고객은 정착 초기 주거비용·생활비 등을 이유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다. 외국인 고객용 상품은 급여이체 기록에 기반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사용하는데, 금리가 중·저신용자



BNK경남은행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에서 다문화 직원이 외국인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외국인 장기체류자 5% 넘어서
韓 사회 '다문화 사회' 초입 진입
은행들, 외국인전용 '슈퍼앱' 운영
지방은행, 전용창구 등 지역 특화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성이 높다. 아울러 외국인 고객은 환전·송금 등 서비스 이용률도 높으며, 투자·사업 등을 이유로 체류하는 경우 자산관리(WM) 수요도 함께 발생한다.

시중은행은 각종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슈퍼앱'을 통해 외국인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신한은행(신한SOL글로벌), 하나은행(Hana EZ), 우리은행(우리WON글로벌)은 별도의 외국인 고객 전용 앱을 통해 외국어 번역 뿐만 아니라 전용 상품·생활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며, KB국민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KB스타뱅크' 내에서 자체적으로 11개국어를 제공하고 있다.

경쟁력을 위한 '특화 서비스'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외국인 고객용 일자리정보서비스를 우리WON글로벌 앱 내에 마련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제주도 내에 외국인 자산가치를 위한 '제주글로벌PB영업점'을 개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1일부터 Hana EZ 앱 내에 여권번호 변경·공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등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별 특화 서비스로 외국인 고객을 공략한다. 전북은행은 중앙아시아 고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브라보 코리아' 브랜드를 출범해 각종 생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공급 중이다. 경남은행은 거제·김해 등 공단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 창구'를 운영하며, 올해 초부터는 자사 앱 내에 중국어·인도네시아어 등 10개국 언어를 추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국인 금융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대출 규제도 확대하면서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성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면서 "반면 외국인 시장은 수익 구조가 다양하고 성장성도 높아, 은행권에서는 외국인 고객 확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은행, 지역·소상공인에 6000억 지원

보증대출 전년대비 7배 이상 확대

하나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00억원의 특별출연을 조기 집행하고 총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30억원의 보증대출 공급보다 7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하나은행은 올해 1월부터 영남·충청·호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경기 변동과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400억원의 특별출연 조기 집행을 통해 부산지역 945억원을 포함

한 영남지역에 총 15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지원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중심의 보증서 대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올해 초부터 신속한 특별출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균형 있는 지역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금융, 3500억 AI 고속도로 펀드 구축

인프라개발펀드 등 3대 전략펀드 조성

신한금융그룹은 총 3500억원 규모의 3대 전략펀드를 조성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최근 ▲AI 산업 기반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신한데이터센터개발펀드 2호' (1250억원) ▲AI 인프라 가동을 뒷받침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투입되는 '신한탄소중립태양광펀드' (1700억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신한인프라개발펀드 3호' (540억원) 등 3대 전략펀드의 조성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펀드는 1분기 중 즉시 투입돼 정부의 탄소중립 및 AI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린 녹색 산업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이와 함께 5개 내외의 추가 프로젝트를 검토해 AI 산업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생산적 금융추진단'을 출범해 전사적 실행 체계를 가동했다. CEO 직속 체계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자회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부터 투자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해 대규모 전략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미래산업 인프라를 함께 설계·구축함으로써 고객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 신차 공개… “프리미엄 시장 공략”

한국GM ‘GMC 브랜드 데이’

아카디아·캐니언 공식 판매 돌입
허머 EV, 전동화 비전·기술력 집약
“‘프로페셔널 그레이드’ 브랜드 새 장”

한국GM이 내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 GMC의 라인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캐딜락과 함께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GM은 27일 경기도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GMC 브랜드 데이를 열고 향후 국내 전략과 신차 허머 EV, 대형 SUV 아카디아, 중형 픽업 캐니언 등 3종을 공개했다. 아카디아와 캐니언은 이날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했고, 허머EV는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한국GM은 그동안 국내에서 GMC 픽업트럭인 시에라 1종만 판매했다. 하지만 이번 라인업 확대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다. 뷰익까지 출시하면 한국은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 쉼보레,



한국GM GMC 브랜드데이 신차 3종.

캐딜락, GMC, 뷰익 등 4개 브랜드를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헨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GM은 전 세계적으로 멀티 브랜드,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을 통해 각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GMC가 한국에서 ‘프로페셔널 그레이드’ 브랜드로서 새 장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신차 3종은 대형 SUV

‘아카디아’, 중형 픽업 ‘캐니언’, 전동화 SUV ‘허머 EV’이다. 아카디아와 캐니언은 이날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허머 EV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된다.

아카디아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332.5마력, 최대토크 45.1kg·m을 발휘한다. 최상위 트림인 ‘드나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아카디아는 2-2-3 시트 구조의 7인승 모델로 3열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이 각각 979mm, 816mm로 동급 최고 수준이다.

트렁크 공간은 648L로 골프가방을 수납할 수 있고 2열까지 접으면 적재 용량은 최대 2758L로 늘어난다. 견인력은 최대 2268kg이다. 국내 GM 차량 최초로 티맵 오토를 기본으로 적용했고 노면의 진동 주파수를 감지해 감쇠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탑재됐다.

캐니언은 2.7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

재해 최고 출력 314마력, 최대토크 54kg·m을 발휘하고 최대 3천493kg을 견인한다. 오토트랙 액티브 2 스피드 사륜구동 시스템과 리어 디퍼렌셜 잠금 기능을 통해 노면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허머EV는 GMC의 전동화 비전과 기술력을 대표하는 럭셔리 SUV로 사륜 조향 기능을 통해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아카디아 8990만원, 캐니언 7685만원으로 책정됐다. GM 관계자는 “아카디아의 북미 가격은 약 6만7000달러로 한화로는 1억원 가까이 된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한국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 “한국 자동차 시장은 프리미엄 SUV와 성능 중심 세그먼트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인다”며 GMC를 통한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배터리업계, 실적 경고등… 非전기차 사업전환 시험대

전기차시장 수요 둔화 등 업황 악화
국내 3社, 지난해 4분기 적자 유력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4분기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중국 등 글로벌시장 경쟁 심화와 함께 전기차 수요 둔화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비전기차 영역으로의 사업 전환이 실적 저점 통과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번 주부터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SK온은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28일, LG에너지솔루션 29일, 삼성SDI는 2월 2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잠정 실적을 통해 1220억원의 영업손실을 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3328억원을 반영한 수치며 이를 제외할 경우

총 4500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SDI 역시 적자 흐름이 이어져 에프앤가이드는 영업손실을 3076억원으로 예상했다. SK온도 약 32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적 부진 배경은 배터리 출하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지속된 점이 꼽힌다. 또 주요 시장의 정책 환경 변화가 주요 위축을 가속화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말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종료된 이후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요 둔화에 따라 주요 완성차 및 소재 업체들의 계약 축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2월 포드와 FBPS 등과 체결했던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엘앤에프는 테슬라와의 약 3조8000억원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

약이 대폭 축소됐고, 포스코퓨처엠 역시 제너럴모터스(GM)와 체결한 양극재 공급 계약 규모를 기존 대비 크게 줄였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질 경우 이같은 계약조정 사례는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150만대에서 올해 110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환경 악화 속에서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CATL은 지난해 1~11월 기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29.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3사의 점유율은 모두 하락했다. 국내사들은 삼원계(NCM)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 왔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확산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의존도를 낮추

고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부각중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력망 안정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지난해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은 314GWh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주목받고 있다. 배터리 탑재 용량은 작지만 고출력·고안전성이 요구돼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장착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춘 NCM 배터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둔화는 향후 2~4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와 점유율 하락 속에서 ESS와 로봇을 축으로 사업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비상 국면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 선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사진)’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약 90개국 3800여명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올림픽 에디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념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했고, 온디바이스 AI 통역 등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서비스를 탑재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S전선, 600억 규모 해저전력망 프로젝트 턴키 수주

말레이시아 전력공사 프로젝트 수행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Turn-key·일괄수행)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 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LS전선은 설계부터 자재 공급, 해저 케이블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고난도의 턴키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수주전에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은 과거 수행한 ‘탕카위 1차 프로젝트’에 이어 2차 사업까지 연속 수주에 성공하며 현지 해저 전력망 구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쌓은 신뢰와 엔지니어링 역량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이 이번 수주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 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아세안 파워 그리드(APG)’ 구축을 목표로 대규모 해저 전력망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섬이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약 20조 원 규모로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LS전선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외 수주 레퍼런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 상반기 입찰 공고가 예상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LS마린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턴키 수주 역량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LS전선 관계자는 “과거 프로젝트 수



LS전선이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해저케이블을 선적하는 모습. /LS전선

행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며 “검증된 턴키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간망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해저 케이블 시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LG전자 ‘시네빔 큐브’ 신제품 출시

LG전자가 밝기와 음향 성능을 한층 강화한 빔프로젝터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27일 시네빔 큐브 2026년형 신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모델은 가로 8cm, 세로·높이 13.5cm 무게 1.49kg의 초소형임에도 4K 고화질로 최대 120인치 초대형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이전 모델 대비 밝기는 최대 600안시루멘(ANSI lumen·미국표준협회 기준 실제 채광 밝기), 사운드 출력 4W로 밝업그레이드됐으며, USB-C 타입 전원, 리모컨 개선 등으로 한층 더 사용이 편리해졌다. /차현정 기자

스마트테크브리지 10년성과 ‘뚜렷’ 등록 이전대상기술 150만건 ‘훌쩍’

기보, 특허 등 공급기술 대거 축적
기술이전 계약 1만여건, 중개역할 톡톡
AI탐색·전자계약·금융 지원 강화
중기부, 스마트테크브리지 적극 활용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테크브리지’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대상기술은 150만건이 훌쩍 넘어섰고 1만 건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돼 기술 중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테크 브리지(Smart Tech-Bridge)’는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수요 기술과 연구원 등이 보유한 기술을 연계해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술거래 및 인수합병(M&A) 민간 플랫폼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7일 기보에 따르면 스마트테크브리지에는 1월 현재 특허 및 실용신안 20만 건, R&D 과제 32만건, 논문 98만건 등 총 150만 여건의 ‘공급기술’(이전대상 기술)이 등록해 있다.

이는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개발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로, 중소벤처기업은 관련 기술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화를 시도할 수 있다.

운영 첫 해인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도 1만966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관련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탐색해 이를 이전받고 사업화 등을 모색하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기보 관계자는 “스마트테크브리지에는 범부처 R&D 정보가 망라돼 있다”면서 “AI 엔진을 탑재해 수요기업이 기술을 수월하게 탐색할 수 있고 전자계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보의



스마트테크브리지 누리집 초기화면.

전국 65개 영업점을 연계한 보증 및 투자 등 금융지원, M&A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한 토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이달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플랫폼을 활용해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추진 ▲기업승계형 M&A 시범사업 운영 ▲M&A 보증 신규공급 점진적 확대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위한 M&A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기보는 또 김종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부산 본사에서 진행한 ‘2026년도 제1차 경영전략워크숍’ 자리에서도 ▲기업구조혁신업무 발전 방안 ▲AX 전략 및 AI 기반 기술혁신정보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 이사장은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올해 AI 반도체 등 신성장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초핵

심경제 실현 선도 ▲K-TOP 활성화 및 기술집해 손해액 산정평가 확대 ▲글로벌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네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및 벤처보증 확대 ▲M&A·기술거래·기술보호 활성화 ▲공정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중기부도 기술거래 성과가 좋은 스마트테크브리지를 적극 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기술 솔루션 탐색을 위해 연구소·기술군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새로 지원한다.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로 추진한다.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 및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렸다.

중기부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스마트테크브리지를 중심으로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고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이 실제 사업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J중공업, 지난해 영업이익 670억 ‘8배 급증’

조선 매출 회복·선별수주 효과
영업익 5년 만에 500억대 복귀

HJ중공업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8배 이상 끌어올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조선부문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구조가 대폭 개선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26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1조9997억원, 영업이익 6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 늘었고, 영업이익은 824.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영업이익(72억원)의 8배를 넘어선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514억원으로 884.6% 증가했다.

HJ중공업이 500억원대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낸 것은 지난 2020년 516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상선 수주와 기존 특수선부문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양대 사업 부문 중 조선부문의 매출 증가와 수익구조 개선이 두드러졌다. 지난 2022년 전체 매출의 18% 수준까지 낮아졌던 조선부문 매출은 업황 회복과

맞물려 급격히 회복되며 지난해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건설부문도 지난해 2조5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선별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감축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면서 메탄을 추진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 LNG 병커링선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선박 건조에 집중한 점이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방산 분야에서는 해군이 발주한 신형 고속정(PKX-B) 32척과 공기부양식 고속상륙정(LSF-II) 8척을 전량 수주·건조하며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말 3800억원 규모 고속정 4척과 해경의 1900톤급 다목적 화학방재함을 수주해 3년 이상의 안정적인 건조 물량을 확보한 점도 주목된다.

HJ중공업은 올 초 미 해군과 MSRA를 체결하며 향후 5년간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강석진 “현장에 답… 기업 직접 찾아가겠다”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광주서 애로 청취
광주전남융합회와 회원들과 소통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현장 소통 프로그램 ‘찾아가는 중진공’을 통해 새해에도 중소기업 애로 청취에 적극 나선다. 중진공은 강 이사장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디에이치글로벌에서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회원사들과 함께 ‘찾아가는 중진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강 이사장 외에도 임기택 케이엔텍 대표 등 광주전남융합회 15개 회원 기업 대표 등이 함께 했다.

강 이사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며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수립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이날 정책자금, 수출·판로 지원, 혁신성장 및 기업 구조개선 지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진공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기업별 관심 분야에 대해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인력, 투자, 사업 전환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여파를 감안한 정책 자금 지원 강화 ▲수출바우처 비수도권 지원 비중 확대 등 정책 제언과 경영 애로사항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승호 기자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대상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사용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총 5790억원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쓸 수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에 더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낼 수 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했다.

세부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대상이 아니다.

지원 신청은 내달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9개 카드사 중 선택하면 이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날인 2월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세아홀딩스, 세아특수강 완전 자회사 편입

지분 100% 확보·이중상장 해소
공시·감사 부담덜고 구조개선 가속

세아홀딩스가 세아특수강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분 100% 확보로 이중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그룹 내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특수강 사업의 구조개선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세아홀딩스는 세아특수강 주주명부에 등재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모두 이전받아 지분 100%, 발행주식 830만9189주 전량을 확보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세아특수강은 다음

달 12일 상장폐지되며, 세아홀딩스는 세아특수강 주주에게 교부할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이번 편입은 지난해 10월 양사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번 완전 자회사 전환은 세아홀딩스가 그간 자회사 중독상장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분산되고 유통주식수가 적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받는 데 제약이 있었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세아특수강의 사업 체질 개선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정비 성격도 갖는다.

/유혜은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s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smiles.com

AI 업은 구글, ‘국내 검색 1위’ 네이버 바짝 추격

구글, 유튜브 결합으로 경쟁력 ↑
링크 → 답변 제공 중심으로 이동
네이버, 생활밀착형 서비스 연계에
AI 전환 과정서 고려사항 많아져

국내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와 구글 간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전환기를 맞아네이버의 ‘안방 1위’ 지위가 구조적 도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검색 서비스 전반에 생성형 AI 모델 ‘제미니’를 본격 적용하며 검색 경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요약형 답변을 제공하고, 이미지·영상까지 아우르는 멀티모달 검색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유튜브와의 결합 효과가 구글 검색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검색 결과 상단에 영상 콘텐츠 노출을 확대하고, 쇼츠와 롬폼 콘텐츠를 정보 탐색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검색과 콘텐츠 소비를 동시에 흡수하고 있다. 텍스트 중심 검색에 강점을 가졌은 국내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시장조사업체 집계에 따르면 국내 검색 점유율에서 네이버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글과의 격차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환경과 20·30대 이용자층을 중심으로 구글 검색 이용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며 체감 격차는 더욱 줄어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검색 서비스의 본질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생성

형 AI 도입 이후 검색은 ‘링크제공’에서 ‘답변 제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데이터와 대규모 AI 모델을 동시에 보유한 구글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네이버는 쇼핑, 지도, 블로그, 카페 등 국내 이용자 기반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검색을 연계해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다만 AI 기반 검색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 검색 구조와 광고·커머스 생태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AI 요약 검색과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환 속도와 체감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AI 전환기는 단순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검색의 정의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라며 “네이버와 구글의 경쟁은 단기 수치보다 이용자 체류 시간과 서비스 충성도를 둘러싼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I 기술을 둘러싼 플랫폼 경쟁이 본

격화되면서 국내 검색 시장도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재편되고 있다. ‘검색 제왕’ 자리를 둘러싼 네이버와 구글의 경쟁은 이제 전환기의 분수령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기반 검색 확산은 검색 시장의 수익 구조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요약형 답변과 대화형 검색이 확대될 경우 이용자의 클릭 경로가 줄어들 수 있어, 기존 키워드 광고 중심의 검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네이버 역시 AI 전환에 대응해 검색 전반의 AI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쇼핑·지도·콘텐츠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 체류 시간과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플랫폼과의 기술 경쟁 속에서 전환 속도와 서비스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펠어비스 ‘붉은사막’ 북미·유럽 기대작으로

펠어비스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신작 ‘붉은사막’이 북미와 유럽 주요 게임 미디어로부터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잇따라 선정됐다.

펠어비스는 ‘붉은사막’이 IGN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미디어로부터 기대작으로 소개됐다고 27일 밝혔다.

북미 최대 게임 매체 IGN은 기대작을 독점 조명하는 프로그램 ‘IGN First’를 통해 붉은사막의 전투 시스템과 오픈월드, 퀘스트, 보스전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IGN은 전투 시스템에 담긴 개발 의도와 다층적인 설계,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다며 풍부한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다.

북미 게임 전문 매체 MMORPG.com은 붉은사막을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선정했다. 기자단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정에서 참여 기자 절반 이상이 붉은사막을 선택했다.

북미 종합 엔터테인먼트 매체 Comic Book은 붉은사막을 올해 가장 주목할 오픈월드 게임으로 꼽으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활기찬 도시, 다양한 탐험 요소가 인상적이라고 전했다.

유럽 미디어의 평가도 이어졌다. 영국 TechRadar는 붉은사막을 가장 야심찬 오픈월드 액션 게임 중 하나로 평가했으며, 독일 GameStar는 뛰어난 오픈월드 가시성과 자체 엔진 기반 그래픽 기술을 강점으로 꼽았다.

/최빛나 기자

LG CNS, AI·클라우드 성장세에 ‘연 매출 6조’ 첫 돌파

지난해 영업이익은 5558억 기록
전년비 매출 2.5%, 영업이익 8.4% ↑
AI·클라우드 매출, 7% 성장한 3.5조

LG CNS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6조원 시대를 열었다. 금융과 제조 등 전통적 강세 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와 물리적 로봇을 결합한 ‘피지컬 AI’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며 차세대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LG CNS는 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6조1295억원, 영업이익 55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5%, 8.4%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 역시 9.1%로 상승하며 수익성 개선을 입증했다. 특히



LG CNS 본사 전경. /LG CNS

핵심 동력인 AI·클라우드 분야 매출이 전년보다 7.0% 성장한 3조5872억원을 달성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LG CNS는 올해를 AI가 직접 의사 결정을 내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사업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

다. 이미 에이전틱 AI 풀스택 플랫폼인 ‘에이전틱웍스’를 통해 금융·제조 등 대외 고객사를 대거 확보했으며, 최근 한국은행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AI 기반 디지털화폐 자동결제 시스템 실증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 AI 선발전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도 LG AI연구원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해 기술적 토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로봇 전환(RX)을 겨냥한 ‘피지컬 AI’가 꼽힌다. LG CNS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을 활용해 산업 현장 데이터로 로봇의 동작을 정교화하고 있다. 현재 10여 개 고객사의 물류센터와 공장에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위한 개념검증(PoC)을 진행 중이며, 향후 자체 로봇 통합 운영 플랫폼

과 고성능 하드웨어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시장 영토 확장도 가속화된다. LG CNS는 북미 지역 계열사 공장의 완전 자동화를 위한 로봇 도입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K-뱅킹’ 시스템 수출 역시 올해 주요 글로벌 전략 과제로 추진된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최근 ‘피지컬 AI의 경쟁력은 하드웨어가 아닌 현장 이해력에 있다’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LG CNS는 올해 에이전틱 AI의 산업별 특화 에이전트를 추가 개발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AX(AI 전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알뜰폰 플랫폼 ‘알닷’ 누적 가입 50만명 돌파

LG유플러스는 알뜰폰 통합 플랫폼 ‘알닷’의 누적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알닷은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 25곳의 900여 개 요금제를 한 번에 비교하고,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플랫폼 이용자 수는 2025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66% 증가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알닷을 전면 개편해 서비스 기능을 확대했다. 개편 이후 요금제 사용 내역과 할인 기간 조회, 요금 납부, 선불 요금제 유심·이심 개통 및 충전, 부가서비스 관리, 인터넷·IPTV 결합 상담 신청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넥슨, ‘메이플 키우기’ 설정오류 논란 사과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 공지 통해 “확률 오류에 안내 없이 패치 진행”

넥스코리아가 인기 방치형 역할수행 게임 RPG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조작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확률형 요소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용자 안내 없이 수정 패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이용자 신뢰 훼손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7일 넥스코리아에 따르면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는 지난 26일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용자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는 공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옵션의 최대 수치가 안내된 확률대로 등장하지 않았”다며 “담당 부서에서 12월 2일 해당 문제를 발견한 뒤 이

용자 안내 없이 수정 패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어빌리티 옵션은 게임 내 캐릭터에 추가 능력치를 부여하는 요소로, 유료 재화인 ‘명예의 훈장’을 소모해 무작위로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게임 출시 이후 약 한 달간 능력치를 반복적으로 재설정해도 설정 가능한 최대 수치가 등장하지 않았으며, 이를 고객센터에 문의한 뒤에도 별도 안내나 보상 없이 패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넥슨은 같은 날 저녁 추가 공지와 사과문을 통해 오류 발생 경위와 보상안을 공개했다. 넥슨에 따르면 게임 코드 내 계산식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이 ‘이하’로 설정돼야 했으나 ‘미만’으로 잘못 설정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진은 문제 발생 기간 동안 어빌



넥슨 ‘메이플 키우기’대표 이미지. /넥슨

리티 재설정을 위해 재화를 소모한 이용자에게 사용한 ‘명예의 훈장’을 100% 환급하고, 유료 구매에 사용한 재화의 200%를 보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이용자에게도 사과의 의미를 담아 게임 아이템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메이플 키우기’는 앞서 캐릭터의 ‘공격 속도’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추가로 수치를 올려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드러나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넥슨은 “기기 발열과 끊김 현상을 줄이기 위해 1초당 공격 모션의 최대 프레임을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빛나 기자

LG헬로비전 오리지널 콘텐츠 ‘꽃보다 미소’ 공개

LG헬로비전은 27일 새해 첫 오리지널 콘텐츠로 중장년층 엄마들의 치아 건강과 삶을 조명한 프로그램 ‘꽃보다 미소(부제: 엄마, 이젠 웃어요)’를 첫 방송한다.

‘꽃보다 미소’는 주 1회, 회당 60분씩 총 10부작으로 편성됐다. 더라이프와 더라이프2, LG헬로비전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되며 LG헬로비전 공식 유튜브 채널 ‘헬로라이프’에서도 공개된다.

이 프로그램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중장년층 엄마들이 치아 건강 회복을 계기로 자존감과 일상을 되찾는 과정을 담는다. 치료 중심의 의료 프로그램을 넘어 가족과의 관계, 삶의 변화 과정을 함께 조명하는 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가족이 직접 엄마의 사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연의 주인공을 출연진이 직접 찾아가 전문의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이후 엄마의 일상 변화를 따라간다.

진행은 3MC 체제로 구성됐다. 가수 장민호가 사연을 듣고 공감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셰프 조서형은 사연자를 직접 찾아가 요리를 통해 소통한다. 치과 전문의 장혁진은 출연자의 치아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과정을 담당한다.

프로그램은 치료 이후 자신감을 회복한 엄마가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는 모습도 함께 담는다. 엄마의 변화 과정과 가족, 출연진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다.

/김서현 기자

1등 기업도 떠나는 코스닥… 특하면 횡령·배임에 신뢰 ‘뚝’

W 천스닥

② 자본 먹튀

지금 조달 이유로 대장주들 떠나
횡령·배임 27건… 신뢰 제고 우선
부실기업 퇴출 등 시장 본질 개선을

#.직장인 홍모(43)씨는 이달 초부터 주식 일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2년 전에 만 든 3000만원짜리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갚기 위해서다. 자동차 구입 비용에 보태려고 마통을 열었지만, 빌린 돈의 대부분은 코스닥 주식 투자에 썼다. 홍씨는 “코스닥 시가 총액 1위 기업도 떠나는데 지수가 오르겠느냐”며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을 것 같아 마통부터 정리했다”고 했다.

코스닥 1등 기업인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으로 이사갈 예정이다. 과거에도 카카오(2017년)와 셀트리온(2018년) 등 큰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간 전례가 있다. 하지만 코스닥이 1000을 넘어선 상황이라 시장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시선은 불안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피로 이동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보다 큰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적어 주가 관리도 손쉽게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국판 나스닥’을 내건 코스닥 알짜 기업이 모두 떠난다면 2부 시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심심찮게 터지는 횡령 배임



ChatGPT로 생성한 ‘코스닥 내 대형 기업이 떠나며 슬퍼하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이미지.

등도 코스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코스닥 외면하는 기업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알테오젠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코스닥 기업들의 잇따른 이전상장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코스피에 입성할 경우 패시브 자금(시장 지수를 따라 투자하는 자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의 펀드는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으로 두기 때문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코스닥은 80%가 개인 자금이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코스닥보다 주가 흐름이 안정적인 점도 매력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유상증자

인데, 이때 주식을 얼마나 발행할지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주가 변동성이 적어야 좋다”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기업이 이전상장을 원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테오젠 역시 앞서 코스피 이전 상장 목적에 대해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라고 공시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전상장 소식을 반긴다. 실제로 패시브 자금 유입 등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발표 직후에는 기대감에 오르지만 이전 상장된 뒤 주가는 펀더멘털(기업의 기초체력)에 따라 회귀하기 때문에 코스피 효과에만 의지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반면 ‘코스닥 공동화’와 ‘2부시장 전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은 “코스닥시장대형기업의이전상장은 코스닥시장의 지수성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대형기업의 이전상장은 다른 이전 상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의 계속되는 이전상장은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기반과 상장 기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국내 모험자본 순환체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위상과 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꺼리는 코스닥의 변동성과 투기심리를 잠재우려면 소위 ‘코스닥의 물관리’가 중요하다”며 “거래소의 상장과 폐지 등 게이트키퍼링을 기능 강화와 기업공개(IPO) 외에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세컨더리 시장(상장 전 사모펀드에 매각 등이 이뤄지는 시장) 육성 등 근본적인 시장 성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하면 횡령·배임, 시장에 찬물

삼천리자전거는 사내이사인 김석환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김석환 회장의 배임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아울러 같은 날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코스닥상장사 참좋은여행도 김석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삼천리는 ‘상장격적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에 오르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삼천리자전거 주가는 고점 대비 21.22%하락했다.

기업들의 횡령·배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횡령·배임 발생’ 공시 건수는 27건이나 된다.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횡령·배임 사건이 보고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소액 주주들은 투자금을 꼼짝없이 묶인 채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거래소의 심사가 길어지면 주식 매매 정지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소액 주주들의 몫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코스닥 내 대형 기업들이 떠나면서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여겨지고 있고, 시장의 본질적인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불공정 공시, 공시 규정 위반 등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늘어나고 있는 부실기업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높여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더라도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는 허상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나 대형 중투사 모험 자본의 무공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 핵심으로, 코스닥 상장사로의 안정적인 자금 유입의 통로가 생겼다”며 “여기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 등 통한 시장 신뢰 개선은 외국인·개인 수급 유입에 우호적”이라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수요 확대

‘코스콤 테스트베드’, 검증 핵심 인프라로

전체 참여 알고리즘 통과율 약 80%
사전 검증부터 사후 심사까지 수행

로보어드바이저(RA) 기반자산관리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며 알고리즘 검증과 운영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판단이 곧 투자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에서는 코스콤 RA 테스트베드가 이러한 검증 인프라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27일 코스콤 RA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증권 및 자문일임의 RA 계약자 수는 전년 대비 약 4만9000명 증가한 37만4853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입 금액은 약 2500억원 증가한 1조1742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 호조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 속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RA는 자산배분과 투자 판단을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금융 서비스다.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는 금융권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심사·검증을 담당하는 공식 테스트 인프라로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국내 RA 시장 운영의 기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분산투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 홈페이지.

/코스콤

자 구조, 투자자 성향 분석 반영 여부, 보안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실제 금융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정기 심사(24차~26차)에는 36개사, 155개 알고리즘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3개사, 86개 알고리즘이 심사를 통과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145개 회사, 906개 알고리즘이 심사에 참여했고, 116개 회사, 725개 알고리즘이 통과했다. 전체 참여 알고리즘 가운데 통과율은 약 80% 수준이다.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는 정기운용심사 완료 후 사후운용심사도

수행한다. 사후운용심사는 RA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도입됐으며,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절차다.

이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 기존에 심사받은 규율대로 정상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참여자가 운용 내역(▲사후운용 리밸런싱 발생내역 ▲사후운용 자가평가서 점검 결과 등)을 제출하면, 코스콤이 실제 거래 내역 등과 비교해 점검한다. 2025년 말 기준 42개 회사, 327개 알고리즘이 사후심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 RA 알고리즘 평균 수익률은 14.8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신하은 기자

ACE 금 현물 ETF 순자산 4.6조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 금 강세 여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만든 국내 최초 금 현물형 상장지수펀드(ETF)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이 4조 6000억원을 넘어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종가 기준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4조64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4조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10영업일 만에 6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당 ETF의 성장세는 글로벌 금 가격 강세와 함께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요가 맞물리며 개인투자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 자금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이어졌으며, 누적 개인순매수액 기준 1404억원이 유입됐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 순매수를 포함한 전체 자금 유입 규모는 3889억원으로, 국내 상장 원자재 ETF 26개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1년 국내 자산운용사가운데 처음 선보인 금 현물형 ETF 상품으로, 한국거래소가 산출 및 발표하는 KRX금현물 지수를 추종한다. 선물형 상품과 달리 월물 교체(롤오버) 비용이나 재간접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자산의 70% 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미래에셋證, 자산관리 계좌 모두 ‘10조클럽’

‘쿼드러플 10조 클럽’에 이름 올려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고객 기준 개인연금·DC형 퇴직연금·IRP에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까지 각각 10조원을 넘기며,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자산관리 4대 핵심 계좌 모두 ‘10조 클럽’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 10조 원을 넘어서며 국

내 금융업계 최초로 ‘쿼드러플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10월 개인연금·DC·IRP의잔고가 모두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절세투자 대표 상품인 ISA까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의 평생 자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5극3특’ 지방시대… 해수부, 지방 주도 수산업 혁신 시동

강원지역 어종 변화·산업구조 분석
동해안 수온 상승 대응 혁신안 마련
가공 공정 스마트화 등 체질 개선

제주·전남 등 6개 권역 의견 수렴
오는 3월 설명회서 최종 전략 발표

해양수산부가 27일 이른바 ‘5극3특’ 중심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수산 현장에도 잘 뿌리내리도록 지역별 기후를 비롯해 입지, 인프라 특성 등을 정밀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5극3특이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체제로 전환해 지방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게 골자다.

해수부는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

/뉴시스

안’에 대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지방

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겹돌지 않도록,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히 구현되도록 실행력 극대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의 첫 행선지는 강원특별자치

도다. 해수부는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해 지방 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그려 나가고 있다.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한 방어 등 신규 양식 품종의 기반 구축,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 수산업에 ‘실물인공지능’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해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강원 수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와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어업인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 다듬어진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중 어업인·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극3특의 정신은 결국 지역의 문제를 현장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방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을 목적으로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부문으로 나뉘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권익위, ‘해묵은 관성민원’ 완전 해소한다

‘집단갈등조정국’ 본격 가동
관계 기관·전문가 협업 통해
되풀이 되지 않는 해결 목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 제기돼 온 집단민원과 공공갈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조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세종 KT&G 세종센터에서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복잡·점예한 집단갈등민원과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사진)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작년 6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집단민원 선제 대응 및 범부처 협업 해결’의 핵심 실행 조직이다. 그간 권익위는 집단갈등민원을 고충처리국에서 분산 처리해왔으나, 이날부터는 전담 조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정



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조정·협약의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으로,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국민은 9375명에 달한다.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강원 양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 경기 성남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충남 당진 한전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집단갈등조정국은 특히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중복·반복 제기돼 온 관성적 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단순 민원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전문가 협업을 통해 민원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 ‘되풀이되지 않는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집단갈등조정국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시민상담관, 법

률·소통 전문가, 퇴직 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100명 이상을 사안별 전담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국회와 논의 중이다.

권익위는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정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집단갈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단갈등민원 신청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집단갈등민원의 매듭을 풀고, 이해관계를 적극 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그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도입

산업 관리 체계 고도화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가 이달 하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제 도입은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 및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 산업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최초 신규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와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신고 기능까지 통합해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체에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R&D(연구·개발), 수출지원, 인력양성 등 기업 맞춤형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업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토양 위에서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 ‘안전경영·국민체감 성과’ 목표

‘전국 부서장 토론회’ 열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경영 확립 및 국민체감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하에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사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전국 부서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인중 사장을 비롯해 본사·지역본부·지사·사업단 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방안 공유·안전실천 결의대회 ▲2026년 주요 업무계획 공유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공사는 ▲안전 관리체계 정비 ▲현장 작동성 강화 ▲교육 확대와 촘촘한 지원 ▲나일 있는 점검과 강력한 제재라는 4대 중점 과제를 실천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김인중 사장의 ‘안전 레드라인’

선언에 따라 부서장들이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안전 레드라인은 공사 안전수칙 5대 핵심 항목을 기반으로 설정한 현장의 최소 안전 기준이다.

올해 업무계획과 중점 추진과제도 공유됐다. 이를 토대로 ‘KRC(농어촌공사)-AX(AI 전환) 추진전략’, ‘디지털 기반 물관리 체계 구축’ 등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성공적 이행전략을 모색했다.

아울러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동서발전, 제주에 국내 최대규모 BESS 구축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향후 15년간 전력계통 안정성 기여

한국동서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제주에 구축해 본격 가동한다.

동서발전은 27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제주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발전소’ 준공식을 열고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발전소는 총 140메가와트시(MWh) 규모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전력저장발전소 가운데 최대 용량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제주도·조천읍 관계자,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LG에너지솔루션 등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북촌 전력저장발전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남은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에 이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 특성상 발전량과 수요 간 불일치로 출력 제어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이를 완화하는 ‘전력망 완충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또 주파수와 전압 안정도 개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등 계통 안정화 기



제주북촌베스발전소 조감도.

/동서발전

능도 수행한다.

동서발전은 2023년 국내 최초로 중앙계약시장방식의 BESS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발전소는 지난해 5월 착공했다. 140MWh 규모의 배터리는 약 4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15년간 제주 전력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경북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산학 협력 모범 사례로

사업 성과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
포항공대·대구가톨릭대 특화 교육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에 기여

경북도가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는 2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북테크노파크와 참여 대학,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평가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인력 양성 사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포항공과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 등 거점 대학과 지역 반도체 기업이 협력해 도출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에서는 대학별 특화 교육



경북도는 2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북테크노파크와 참여 대학,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평가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과정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 성과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포항공과대학교는 나노융합기술원의 첨단 반도체 펌프 인프라를 활용해 실습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을 운영했다. 특성화고 학생 대상 입문 교육부터 대학생 대상 공정·분석 실무 교육, 기업 연구개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인력 양성까지 단계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

에 기여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현장 맞춤형 반도체 공정과 패키징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했다. 설계와 공정, 패키징, 검사·분석 등 전주기 교육 과정을 운영해 수료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였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교육 인원 확대를 넘어 양성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유입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가 다시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

환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생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장비 실습 기회를 얻었고, 참여 기업들은 별도의 재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산·학 협력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와의 연계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주도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반도체 인력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경북 인재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만남지원사업으로 결혼커플 탄생

경주시는 미혼 청년남녀를 대상으로 추진한 만남지원사업을 통해 첫 성혼 커플이 탄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성혼한 커플은 지난해 6월 경주시가 주최한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 인연을 맺었으며, 오는 2월 경주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미혼남녀가 취미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만남지원 프로그램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포항시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포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주거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다.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자 1인당 생활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경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지원해 총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경남도의회, 정책 연구과제 8개 선정

인구 감소 대응 등 지역 주요 현안
도민 누구나 연구 성과 확인 가능

경남도의회가 올해 상반기 추진할 정책 연구 과제 8개를 확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의정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정책 연구 용역 심의 위원회'를 열고 8개 연구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민호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과 도내 대학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과 범위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살폈다.

심의 대상은 8개 의원 연구 단체가 각 1건씩 제안한 과제다. 인구 감소 대응, 교육 격차 해소,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광 자원화, 디지털 행정 혁신, 의회 발전 전략, 다문화 정책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망라했다.

각 연구는 앞으로 조례 제·개정, 5분 자유 발언, 도정 질문 등 의정 활동에 쓰인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연구 결과를 공식 누리집에 공개한다. 도민 누구나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선정된 8건도 연구 종료 후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025 의원 연구 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 50여명과 도민이 직접 참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행사 전 과정은 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서민호 위원장은 "정책 연구 용역은 도민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연구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선정된 연구 과제가 완성도 높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의정 활동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항만공사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지난 26일 BPA 본사에서 기술 창업 활성화와 유망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 및 창업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해양·항만 창업 지원

부산기술창업투원과 업무 협약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BSIA)이 해양·항만 분야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잡았다.

BPA와 BSIA는 지난 26일 BPA 본사에서 기술 창업 활성화와 유망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식 및 창업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 기업 발굴 및 육성 ▲기술 실증 및 사

업화 연계 ▲투자 유치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공동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BPA는 항만 인프라와 현장 실증 환경을 활용한 공공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BSIA는 지역 창업 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를 맡아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대구경북통합추진단 출범

행정통합 실무 가동

경북도는 26일 도청에서 대구시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 현판식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체계를 즉각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난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통합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합추진단은 경북도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대구시 정책기획관이 각각 실무팀을 맡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우선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향을 재확인하고, 통합방안과 주요 내용을 대구경북 공동으로 합의·보완해 경북도의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도의회의 통합 의견 청취 절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의회의견 청취 이후에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6000m급 심해 탐사선 구경해 보세요”

부산과학관-해양과학기술원
5월 10일까지 협력특별전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협력해 해양 과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협력특별전'을 오는 5월 10일까지 과학관 1층 팝업 전시 공간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심 6000m급 심해 탐사를 수행하는 최첨단 연구선 '이사부

호'와 해저 지형·지질 조사에 활용되는 수중건설로봇의 실물 모형이 공개된다.

관람객들은 영상 자료와 함께 실제 연구 현장에서 사용되는 탐사 장비의 구조와 기능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 '심해의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망간단괴를 비롯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등 미래 전략 자원으로 주목받는 심해저 광물 3종이 실물로 전시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용자 늘었다

부산도서관은 부산시 공공도서관 176곳의 이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체 도서 대출자 수는 278만6794명, 대출 권수는 934만1309권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대출자 수는 1.0%, 대출 권수는 1.5% 증가한 수치다.

대출자 1인당 연간 평균 대출 권수는 약 3.4권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성인 이용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도 꾸준히 이어졌다. 2025년 기준 성인 대출자는 196만1353명, 어린이 47만7927명, 청소년 10만5828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빙그레, 해태 흡수합병 ‘승부수’… 빙과시장 지각변동 예고

지분인수 5년만에 완전통합 선택
합병완료시 빙과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수출 확대 등 시너지 기대
일각선 브랜드 정체성 혼란 우려도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완전 흡수합병하며 빙과업계 판도 재편에 나섰다. 점유율 기준 업계 1위 탈환과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꾀하는 승부수지만, 합병 직후 전사 희망퇴직까지 이어지며 시너지가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다음 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해태아이스크림 흡수합병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합병은 빙그레가 존속법인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4월 1일 완료가 목표다. 이는 빙그레가 2020년 10월 해태아이스크림 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5년여 만이다.

빙그레는 인수 이후 해태아이스크림을 독립 법인으로 운영하면서도 물류센터, 영업소, 공동 마케팅 등 운영 효율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고정비 부담이 큰 빙과산업 구조상 중복조치를 정리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완전 통합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빙그레 본사 전경

회사 측은 중복 조직 통합과 업무 프로세스 일원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빙과 시장 점유율은 롯데웰푸드가 39.86%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빙그레(28.25%)와 해태아이스크림(14.68%)이 뒤를 잇고 있다. 양사 점유율을 합산할 경우 빙그레는 42.93%로 단숨에 1위로 올라선다.

매출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웰푸드의 빙과사업 누적 매출은 7509억원으로 빙그레(해태 제

외·5975억원)를 앞섰다. 그러나 해태아이스크림 실적을 합산하면 빙그레의 빙과 누적 매출은 7530억원으로 롯데웰푸드를 소폭 웃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의 핵심 긍정 요인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 글로벌 확장 가속화를 꼽는다. 실제로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이후 공동 마케팅과 인프라 통합을 통해 인수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매출도 지속 성장해 성공적인 인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병 이후 글로벌 확장은 가장 기대되는 시너지다. 바나나맛우유는 해외 관광객 수요로 편의점 품질 사례가 거론될 만큼 글로벌 인지도가 높고,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메로나가 대표적인 해외 히트 상품으로 꼽힌다.

빙그레는 메로나를 앞세워 글로벌 유통채널 입점과 수출 확대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식물성 메로나’를 앞세워 프랑스 까르푸에 공식 입점했으며, 독일 할인형 슈퍼마켓 네토(Netto), 폴란드 까르푸 등으로 유럽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 식물성 메로나는 유성분을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 수출 전용 제품으로, 유럽 지역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개발됐다. 빙그레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 성장성도 긍정적이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의 2024년 아이스크림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장은 2023년 867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 113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당·제로슈거, 단백질·칼슘 강화 제품 등 신제품 개발 여지가 넓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 채널이 빠르게 확대된 점이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부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 국내 빙과시장 자체가 구조적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프랜차이즈·카페 등으로 디저트 소비 채널이 분산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빙그레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익은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 역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상태다.

합병 이후 브랜드 간 자기잠식(카니발리즘)과 브랜드 정체성 혼란 가능성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된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제품군이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경쟁할 경우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저출생·인구 감소, 고갈로리 아이스크림 수요 약화, 대체 디저트 확산 등 구조적 변수도 부담이다. FIS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매출은 2015년 약 2조180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빙그레가 최근 해태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지한 점도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 압박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후 확대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리·운용하느냐가 수익성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빙그레가 점유율 확대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선택과 집중, 글로벌 확장 성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 LLM 기반 고객 편의 서비스 강화

프레시엔 ‘AI 주문 에이전트’ 도입
검색 과정없이 원하는 상품 자동매칭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주문 플랫폼 ‘프레시엔(Fresh&)’이 LLM(거대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한 ‘AI 주문 에이전트’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연어 입력만으로 주문을 간편하게 수행해 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AI 주문 에이전트는 고객이 복잡한 검색 과정을 없이도 원하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주문 지원 기능이다. 사용자가 “어제 주문



프레시엔 ‘AI 주문 에이전트’ 베타 서비스 화면. /CJ프레시웨이

한 상품 그대로 담아줘”, “쌀 20kg, 우유 1L 2개 주문” 등 일상적인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주문 의도를 분석해 구매 이

력과 상품 정보를 참조하고 규격과 수량을 자동으로 매칭해 장바구니에 담는다. 이를 통해 기존의 번거로운 검색과 선택 과정을 줄일 수 있다.

해당 기능은 프레시엔뿐 아니라 외부 연동 환경에도 적용해 활용 범위를 넓혔다. 매출 관리 필수 앱 ‘오늘알마’,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에서 제공되는 자사 주문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고객이 평소 사용하던 앱 환경에서 별도의 학습 없이 주문 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엔 내 AI 기반 기능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고

객의 업종과 구매 패턴을 분석해 매장 특성에 맞는 식자재를 제안하는 추천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향후에는 24시간 자동 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문의(CS)에 대한 대응 효율을 높이는 등 플랫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외식사업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줄이는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DT) 전략의 일환으로 최신 기술 기반 고객 편의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차별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모델들이 한우 특수부위 선물세트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 한우 선물세트 대폭 확대

전년대비 특수부위 구성 3배

신세계백화점이 설 명절을 맞아 한우 특수부위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해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한우 소비 트렌드가 단순히 ‘비싼 고기’를 선호하던 단계를 넘어 부위별 식감과 풍미의 차이를 즐기는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올 설 선물세트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수부위 구성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렸고, 전체 물량도 약 30% 확대해 명절 수요에 대응한다.

이번 선물세트는 자체 브랜드인 ‘신세계 암소 한우’ 중에서도 부위별 개성이 뚜렷한 특수부위 위주로 구성했다. 눈꽃 같은 마블링을 자랑하는 살치살, 육향이 진하고 담백한 제비추리를 비롯해 소한 마리에서 소량만 나오는 토시살, 안창살 등을 고루 담았다.

신세계백화점 축산 바이어들은 이번 세트를 위해 충북 음성 공판장을 수십 차례 방문, 지육 경매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원육을 엄선했다. 모든 상품은 부위별 특성을 고려해 진공 개별 포장하여 보관 편의성을 높였다. /손종욱 기자

이마트, 내일부터 7일간 ‘고래잇 페스타’

‘무한 골라담기’ 등 초특가 행사

이마트가 이달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고래잇 페스타’를 열고 먹거리부터 가구, 가전 등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초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단 4일간 진행되는 ‘무한 골라담기’다. ‘과자 무한 골라담기’는 2만 5000원을 내면 지정된 박스에 해태제과 인기 스낵 10종을 개수 제한 없이 담을 수 있다.

제철 과일인 만감류도 파격가에 선보인다.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중 원하는 종류 7개를 골라 담으면 98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판매가 대비 최대

반값 수준으로, 이마트는 평소보다 5배 많은 400톤 물량을 준비했다.

신학과와 설 명절 수요를 겨냥한 가구와 가전 혜택도 강화했다. 이마트 단독으로 선보이는 ‘데코라인 플랜 침대세트(슈퍼싱글)’는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수납장 등을 포함해 19만9000원이라는 초특가에 판매한다. 또한 학생증 인증시 맥북 에어 M4, 아이패드 에어 M3 등 애플 인기 제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효도 가전으로 꼽히는 안마의자(세라젠, 바디프랜드 등)는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1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소형 마사지와 찜질기로 1만~2만 원대 특가로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신세계푸드, ‘베키아에누보’ 성장세 뚜렷

냉동 샌드위치 판매량 급증

신세계푸드의 ‘베키아에누보’ 냉동 샌드위치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지난해 ‘베키아에누보’ 냉동 샌드위치 8종의 판매량은 2024년 대비 195% 증가했으며, 연간 판매량 500만개(패키지 기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 제품인 ‘바질치즈 치아바타 샌드위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월 평균 4만개 이상 판매되며 출시 이후 5년 연속 냉동 샌드위치 판매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커피와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채널에서도 판매

순위 1위에 오르며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냉동 샌드위치 시장이 가정에서의 소비를 넘어 카페, 베이커리 등 B2B 채널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원물 차별화와 고급화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고물가 기조 속에서 기술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춘 냉동 샌드위치가 합리적인 한 끼 식사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정용과 B2B 시장에서 아우르는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확대하는 리딩 제품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K-분자진단 기업, 국내 기반 다지고 해외시장 노린다

GC지놈, 생애 검사 포트폴리오 보유
지난해 일본 의료시장 첫 진출
HLB파나진, 제품 다변화 주력
분자진단 부문 매출 전체의 75%

유전자 진단 사업이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며 해외 시장 공략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액체생검 및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 GC지놈은 실적 반등을 성장 기반으로 해외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GC지놈은 지난해 별도기준 연간 실적으로 매출 315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2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40억원으로 당기순손실 13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6월 코스닥에 상장한 후 반년 만의 성과다.

GC지놈은 이러한 수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은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사업인 암 검사, 산과 검사, 유전회귀 검사 등 전반이



베트남 하노이 소재 'GC&PHENIKAA 헬스케어 센터'.

/GC녹십자

성장세를 보였다. 또 일본, 베트남, 중국 등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 의료 시장에서 처음 진출해 다중암 조기 진단검사 '아이캔서치'를 공식 선보였다. 아이캔서치는 혈액 10ml로 대장암, 폐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식도암, 난소암 등 6종의 암을 동시에 선별하는 기능을 갖췄다. 혈액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암세포 DNA 조각을 탐색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

즘으로 분석한다.

베트남에서도 AI 기반 정밀검진 모델을 확대한다. GC그룹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GC&페니카 헬스케어 센터'를 공식 개소했고 주요 암 14종과 30여 종의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치했다.

이와 관련 GC지놈은 고형암 환자의 유전적 진단 및 치료 예측에 활용하는 '그린플랜 고형암 검사', 산전 검사 '지니프트' 등 생애 전체 주기에 적용 가능

한 검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베트남 헬스케어 시장에서 폭넓은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C그룹 측은 "베트남의 정기 검진 확대 정책, 조기검진 수요 등 적극 공략 가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LB그룹의 유전자 진단 전문기업 HLB파나진은 제품 다변화에 주력하며 분자진단·현장진단·동반진단을 아우르는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HLB파나진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실적으로 별도기준 매출액 108억원, 영업이익 10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735% 커졌다. 분기별로는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다.

핵심 사업은 분자진단 부문이다.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인 가운데, 국내 최초로 폐암 환자의 ROS1 유전자 변이를 간편하게 검사하는 폐암용 제품 '온코텍터 RO S1FD' 등이 판매 호조를 이뤘다.

HLB파나진은 최근 글로벌 바이오기업 록진테크놀로지와의 협력 계약을 체결해 록진의 현장진단 제품 라인업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연구용 장비, 솔루션 등을 국내 연구기관,

병원, 진단검사실, 실험실 등에 공급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HLB파나진의 체외진단 분야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HLB파나진은 독자적인 인공핵산(PNA) 기술을 기반으로 암, 감염성 질환 등을 진단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 왔다. 지난해 말에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진단 2종, 성매개감염균(STI) 진단 1종 등 감염질환 진단제품 총 3종에 대해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CE-IVDR)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면역진단, 조직 내 단백질 정보를 정밀 분석해 제공하는 공간단백체 분석 서비스 등으로 영역에서도 기업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인근 HLB파나진 대표는 "록진과의 협력은 HLB파나진의 체외진단 플랫폼 사업을 한 단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진단을 포함한 분자진단 제품 공급을 통해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OEM 개발 등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IP 협업으로 고객 경험 확대

'망그러진 꿈'과 올해 첫 협업
브랜드사 참여 문턱 낮춰

CJ올리브영이 오는 2월 한달간 국내 캐릭터 '망그러진 꿈'과 함께 올해 첫 협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창작자 유망 작가의 '망그러진 꿈'은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일상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SNS 공식 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팔로워 수는 70만 명에 달한다.

이번 협업으로 21개 브랜드, 119종 상품에 망그러진 꿈이 적용된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 다양한 뷰티 제품 디자인에 활용되고 파우치, 동전 지갑, 키링 등도 선보여진다. 캐릭터의 세계관을 반영해 고객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마포에 위치한 트렌드팟 바이 올리브영 홍대에



'올리브영X망그러진 꿈'

/CJ올리브영

'망그러진 꿈의 특별한 꿈 속'을 주제로 한 팝업 공간도 꾸며진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인기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IP) 기반의 협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캐릭터와 콘텐츠 경쟁

력을 도입해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 동시에 올리브영이 직접 IP 협업 구조를 마련해 브랜드사의 참여 문턱은 낮추고 마케팅 효과는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정보보호 국제표준 재인증

보안사고 예방·내부 프로세스 강화

에서도 적합성 판정을 받았다.

JW중외제약은 최근 국제 공인인증 기관인 IGC인증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 재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이다. 조직 상황, 리더십, 계획, 지원 등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관련 요구 사항과 4개 영역, 93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3년 ISO 27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 이후 1년 마다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의 유효성을 검증받았으며 지난해 2차 사후 심사

에서도 적합성 판정을 받았다. JW중외제약은 보안사고 예방 및 내부 프로세스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SO 27001 재인증은 계기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보안 교육도 확대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고객과의 핵심적인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정보보호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안 환경을 유지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삼바에피스, 염증성 장질환 심포지엄 개최

'에피즈텍' 최신 제형 공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4~25일 웨스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 분야의 최신 연구 및 임상 동향을 공유하는 심포지엄 'SYMBOL 2026'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소화기내과 분야 의료진 약 70여 명이 참석해 환자 치료 및 관리 전략, 최신 가이드라인, 임상 사례 중심의 실제 적용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활용 가능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에피즈텍(성분명: 우스테키누맵)'도 소개했다.

에피즈텍은 면역반응 관련 신경 전달 물질 인터루킨(IL)-12 및 23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4년 4월 국내 최초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에피즈텍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같은 해 7월 기존 스텔라 대비 약 40% 낮은 약가로 출

시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왔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3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우스테키누맵 성분 의약품 중 최초로 '사전 충전 펜(PFP)' 형태의 에피즈텍을 추가 승인 받았다. 이는 기존 사전 충전 주사(PFS) 방식보다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정진한 상무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대한 최신 연구·임상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과 꾸준한 학술 소통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내년 경기도 안성에 준공 예정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 용마로지스는 오는 2027년 경기도 안성에 준공 예정인 '신허브물류센터'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첨단, 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 창고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건축 전 설계도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예비인증과 준공 이후의 본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신허브물류센터는 기존 안성 1센터 대비 분류장 면적이 약 2배 이상 확대된다. 분류기 하차라인도 2배 이상 늘어난다. 물량 처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용마로지스 신허브물류센터 조감도.

/용마쏘시그그룹

커지고 분류 속도는 1.5배 이상 향상돼 처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신허브물류센터는 이러한 규모 확대를 통해 최첨단 자동화 풀필먼트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센터로 구현된다. 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입고, 보관, 포장, 배송, 재고 관리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청하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오뚜기, 재난발생 대비 이재민 지원 나눔 실천

오뚜기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이재민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 후원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뚜기 봉사단 14명이 참여해 비상식량세트 500개를 제작하며 이재민 지원에 힘을 보탰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한 이번 비상식량세트 마련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뚜기



에쓰오일, ESG 기반 협력업체 관리 강화

에쓰오일이 ESG를 포함한 협력업체 관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에쓰오일은 22일 울산에서 '2025년 우수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된 5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지난 2010년부터 협력업체관리(SRM)시스템을 운영하여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에쓰오일



정식품,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로 나눔 실천

오리지널 듀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이 21일 대한사회복지회에 2만6000개의 베지밀 듀유를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듀유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진행된 정식품의 대표 나눔 캠페인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아동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식품



SK온, ESS 안전성 연구·평가체계 강화 협력

SK온은 2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과 'ESS 화재안전성 고도화 및 차세대 안전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온과 전기안전연구원은 ▲ESS 화재안전성 연구 및 평가 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SK온



우리는행, 피싱피해 '원천 차단' 협력체계 마련

우리는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보이스피싱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중앙경찰서와 직통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는행과 서울중앙경찰서는 지난 26일 '피싱 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업점과 경찰을 직접 연결하는 직통 핫라인을 구축했다. /우리는행

CJ그룹 오너 4세 이선희, '퀴진케이'서 영셰프들과 교류

〈미래기획그룹장〉

CJ제일제당 'DOTS Day' 개최
150여명 참여, 도전 메시지 공유
R&D '살롱'·해외협업 등 확대

CJ그룹 오너 4세 이선희 미래기획그룹장이 젊은 셰프를 만났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복합문화공간 케이브하우스에서 '2026퀴진케이이닷츠데이(Cuisine, K DOTS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퀴진케이(Cuisine, K)'는 CJ제일제당의 한식 인재 발굴·육성 프로젝트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닷츠데이는 젊은 셰프들의 성장과 교류를 지원하는 연례 네트워킹 행사다.

'Draw Opportunities and Take the Start(기회를 설계하고 도전하라)'



'2026 퀴진케이 닷츠데이' 행사 단체사진.

/뉴시스

의 앞 글자에서 따온 이름으로, 한식의 가능성을 그리며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겠다는 퀴진케이의 포부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희 CJ 미래기획그룹장을 비롯해 퀴진케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셰프와 1~3기 알럼

나이(Alumni) 셰프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소통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퀴진케이는 지난해 홍콩 팝업 레스토랑, 유럽 3개국(영국·독일·스페인) 쿠킹클래스, 영국·인도네시아 요리대

현대차 정몽구 재단-대한수학회

‘K-테크’ 이끌 기초과학 인재 육성

‘YMC 수학캠프’ 송도서 3박4일
고교생 40명·멘토 17명 협력학습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대한수학회와 손잡고 차세대 이공계 인재 양성에 나선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26일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2026YMC 수학캠프' 입소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수리과학의 발전과 차세대 수학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대한수학회와 협력하여 기획됐다. 입소식에는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과 박시종 대한수학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선발된 일반계 고등학생 40명,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원)생 17명이 참석했다.

YMC 수학캠프는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설립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인재 육성 철학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초 학문인 수학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깊이 있는 수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수학을 좋아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원)생 조교와 6인 1조를 이뤄 협력 학습을 진행한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수학 이론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수학이 실제 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단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에게 수학의 새로운 매력을 일깨우고,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 커미션’ 올해 전시작가 ‘타렉 아투이’

현대차, 英 런던 ‘터바인 홀’서 진행

현대차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 진행하는 대규모 전시 프로젝트 '현대 커미션'의 올해 전시 작가로 타렉 아투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현대 커미션은 현대미술 발전을 위해 매년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해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전시 공간 '터바인 홀'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한다.

타렉 아투이는 1980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태어나 현재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작곡가다. 음악사·악기·음악 제작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소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새롭게 제시하고 그 이해를 확장하는 다감각적 퍼포먼스와 설치 작업을 선보여 왔다.

그의 작업의 핵심은 여러 예술가·



타렉 아투이의 작품 'Souffle Continu'.

작곡가·제작자들과 협업해 유리·물·도자기 등의 재료로 새롭게 구상한 악기를 직접 만드는 데 있다. 악기들은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모터의 섬세한 작동 또는 연주자와 관객의 신체적 접촉이나 호흡을 통해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ysw@

김동명 “위기는 전환점, 더 큰 성장 기회”

〈LG에너지솔루션 사장〉

LG엔솔, ‘파트너스 데이’ 개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EV) 중심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확대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에 대응해 국내외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동반 성장 및 미래 준비를 위한 '2026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동명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을 실질적 성과로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서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제품 다양성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중장기 제품 경쟁력을

회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현지 식문화와 어우러지는 한식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올해 퀴진케이는 안으로는 한식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고, 밖으로는 글로벌 무대를 한층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식 R&D 프로그램 '퀴진케이 살롱'을 본격 운영하고 영셰프들이 한국 고유의 식문화를 연구하며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신규 프로그램 '코리안 셰프 시리즈(Korean Chef Series)'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식 셰프들과 협업한 팝업, 쇼케이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2026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확실하게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기’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명사 크리스시스(Krisis)와 동사 크리노(Krino)에서 파생한 것으로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한다”며 “균건한 신뢰와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아 지금 우리가 겪는 산업의 조정기를 더 큰 성장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스타벅스, ‘캠퍼스 버디’ 누적 55만명 돌파

대학생 5명 중 1명 가입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학생 전용 멤버십 '캠퍼스 버디' 누적 가입자 수가 55만 명을 넘어섰다. 2024년 9월 론칭 이후 약 1년 4개월 만으로 전국 대학(원)생 5명 중 1명이 캠퍼스 버디를 이용하는 셈이다.

캠퍼스 버디는 카카오톡 학생증 발급이 가능한 400여 개 대학(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멤버십이다. 1년마다 재학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빠른 성장 배경으로

'대학생 맞춤형 혜택'을 꼽았다. 최초 가입 시 제조 음료 50% 할인 쿠폰을 비롯해 주중 30% 할인, 주말 1+1, 매월 푸드 20% 할인 등 체감 할인 폭이 큰 쿠폰을 제공한다. 특히 평일 이용률이 높은 대학생 라이프스타일과 맞물리며 '주중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캠퍼스 버디 가입 고객은 미가입자 대비 구매 빈도와 구매 금액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4분기 구매 금액은 1분기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11월과 3월 등 학사 일정과 맞물린 시기에 방문이 집중됐다.

/신원선 기자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국민소통실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국지연구소 ◇인사 발령 △연구기획실장 박현이 △경영기획실장 장환준

부음

▲박우현씨 별세, 박성호(KBC광주방송 보도국 차장)씨 조부상=26일, 광주금호정례식장 특201호, 발인 28일 오전 10시, 장지 화순군 사평면. 062-227-4000.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자판기와 키오스크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일본은 자판기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거의 곳곳에서 자판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주택가 골목은 물론이고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 심지어 등산로에서도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자판기는 단순한 판매 기계를 넘어 하나의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지역에서 자판기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재난 상황에서 물과 음료를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에 사회 인프라로 불려도 충분한 것이다.

일본에서 자판기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의 부족에 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했으며,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해서 자판기는 사람의 빈자리를 메꾸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등장한 'Hot & Cold' 기술로 인해 한 대의 기계에서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가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자판기를 사계절 필수품으로 만들었다. 자판기는 편의점

이 성행하기 전부터 24시간 계절에 따라 차갑거나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자판기의 판매 품목도 음료에 이어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었고 심지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자판기까지 진화했다. 일본에서도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데, 이는 운전면허증을 통한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에도 자판기가 1970년대부터 도입되었고 1990년대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판매하며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편의점의 등장으로 인해 자판기가 밀려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지하철역이나 공장, 병원 등의 일부 공간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즉 일본에서는 여전히 자판기가 사회 인프라로 골목 어디서든 접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판기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일본의 식당에 설치된 자판기의 한 종류인 식권 발매기 역시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점원이 직접 주문받고 계산해서 잔돈을 거슬러 주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많은 식당이 자판기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자판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설치한 자판기는 현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도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구형 자판기를 고집하다 보니 해외에서 온 여행객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도 불편을 호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식당에서는 오히려 자판기가 사라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식당에 설치되었다. 키오스크 역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지만 도입 배경이 단순한 인건비 절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기점으로 비대면 주문이 요구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된 것이다. 한국의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제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오히려 장벽이 되어 효율성을 얻는 대신 잃은 것도 있다.

편의성과 경제성을 먼저 달성한 자판기의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일본의 모습이라면, 외부 변화를 순식간에 받아들여 빠르게 확산한 키오스크는 한국의 모습이 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무신사에서 노래 부르며 사우나 할 날이 올까



기 지 수 첩
손 중 욱
(유통&라이프부)

기사 거리가 떨어진 유통부 기자에게 무신사는 고마운 기업이다. 상표권 검색 사이트에서 '무신사'를 입력해 본다. 무신사 스탠다드 스마트, 멤버스, 캠페인인, 펫, 플레이스, 테이블, 텔리, 드롭, 필드, 아웃도어, 케어, 컨시어지, PAW, 캠프, 클럽, 나우, 트레일, 스냅, 패스, 무신사우나, 무신사플라워, 무신사...

어떤 기자는 '무신사, 캠퍼용품 진출하나... 상표권 대거 등록'이라는 기사를 쓰고, 어떤 기자는 '무신사, 구독형 플랫폼으로 거듭나나... 무신사 패스 상표권 등록'이라는 기사를 낸다. 등록 배경을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비슷하다. "선점 차원일 뿐, 구체

적 사업 계획은 없다"는 내용이다.

무신사가 펼치는 광폭 행보는 올해 예정된 기업공개(IPO)와 맞닿아 있다. 목표 기업 가치 10조원 이상을 달성하고자 패션을 넘어 뷰티, 리빙, 생활용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꾀한다. 최근 명동과 성수 등 주요 변화가에 점포를 열며 단순 패션 플랫폼을 넘어 종합몰로 변신 중이기도 하다. 지금은 무의미해 보이는 상표권도 언젠가 현실이 되어 나타날지 모른다.

취급 품목이 늘자 경쟁사와 충돌도 잦아졌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은 쿠팡이 상대다. 한때 쿠팡은 OTT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신사 뽀빠네다'는 대사로 무신사를 우회해 저격했다. 무신사가 쿠팡 임원을 대거 영입하자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최근 무신사는 '구만원 뽀빠 쿠팡'을 내세우며 맞불을 댔다. 쿠팡 색을 가진 쿠폰까지 누가 봐도 저격한 모습이다.

무신사에서 쿠팡의 과거가 겹쳐 보인다. 쿠팡은 '쿠폰이 광판 타진다'라는 뜻을 가진 할인쿠폰 공동구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 (쿠팡 측은 부인하고 있다) 무신사 역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란 커뮤니티로 시작했다. 지금처럼 다루는 품목이 많지 않았다.

쿠팡은 2020년 상장 전 몸값을 올리기 위해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으로 사업군을 넓혔다. 이후 대만과 일본에 진출해 덩치를 키웠다. 무신사도 상장을 앞두고 상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상하이 안푸루 편집숍 개점, 일본 법인 대표 선임 등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다. 또 닳은 점이 있다.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논란 속에 두문불출하던 김범석 쿠팡 의장 모습이 겹치는 대목이다.

/handbell@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1월 28일 (음 12월 10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분노가 치밀어도 차분하게 분을 참아야. 48년생 손뽕도 미주쳐야 소리가 난다. 60년생 요령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라. 72년생 현재의 자산은 과거 삶의 부지런한 결과이다. 84년생 폭풍이오니 멀리 있는 길은 금물일 듯.

 소

37년생 조상제사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49년생 젊음은 언제나 행복한 시기이다. 61년생 공부에 매진하여 갈고닦아라. 73년생 초대는 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85년생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술력은 무시하지 못함.

 호랑이

38년생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도 삶의 기준으로 볼 것. 50년생 능력이 부족하데 불평이 많은지? 62년생 지출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74년생 이득이 있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려라. 86년생 마음은 있으나 돈이 떠나주지 않으니 하랄.

 토끼

39년생 매사에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51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미리 거절. 63년생 아직보다는 다니는 직장을 소중히. 75년생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반갑다. 87년생 비트코인과는 인연이 없으니 직장에 성실하도록.

 양

40년생 상대는 교만해도 나는 진솔하게 대할 것. 52년생 술을 좋아하는 것도 자제해야. 64년생 어디를 가나 스승은 있으니 겸손하라. 76년생 사람을 모아 놓고 말이 길어지면 눈총이다. 88년생 외출할 때 연락망인 핸드폰 챙겨가도록.

 원숭이

41년생 친구는 서로 보물과 같으니 이기심을 버려라. 53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것은 잊히는 것이라. 65년생 힘든 업무를 선배가 도와준다. 77년생 삼각관계 바람이 웬 말인가. 89년생 금 각 살이 있으니 자하절 다닐 때 미끄럼 주의.

 말

42년생 분홍색이 행운을 주니 옷을 잘 챙겨보라. 54년생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승패를 좌지우지. 66년생 쾌청한 날이니 집 안 청소를 분위기를 바꾸자. 78년생 멀리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90년생 마음이 상해도 가족끼리는 협조를.

 고양이

43년생 묵었던 일이 순조롭게 해결. 55년생 시간이 없어 곤란하더라도 일은 마무리하라. 67년생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 79년생 집안 문제로 사돈끼리 다투기보다는 대화로 풀어가라. 91년생 화려한 옷을 입어보고 마음을 화사하게.

 원숭이

44년생 남의 부부 일에 간섭하다 도리어 화근. 56년생 직장에서 후배 동료들을 선동하지 마라. 68년생 눈에 띄려 하지 말고 말조심. 80년생 힘든 끝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9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 음식 섭취에도 천천히.

 닭

4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지만 사람은 옛사람이. 57년생 지식을 유용하게 쓰니 좋은 일이 있다. 69년생 오전부터 활기차게 계획을. 81년생 조상님 덕으로 오늘이 있는 것이니 효는 기본이다. 93년생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부류를 경계해야.

 돼지

46년생 상부상조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 58년생 모자란 듯이 약간 부족한 것이 이롭다. 70년생 작은 것을 양보하면 큰 것이 온다. 82년생 운이 좋으나 음주운전은 주의해야. 94년생 친구에게 돈 자랑을 말로만 떠벌리지 말고 베풀어라.

 돼지

47년생 변화의 운이오니 서두르지 마라. 59년생 우기다가 손실이 커진다. 71년생 부적 절한 만남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83년생 늦지 않았으니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95년생 삼계 팔란 관제구설이라 했으니 삼계 기도.

김상회의四季

남 탓



언제부턴가 남 탓하는 말이 많이 들린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제도나 조직을 탓하고, 성과가 나쁘면 뒷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먼저 탓한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 빠르고 거칠게 책임을 전가한다. 자극적인 표현이 가득한 짧은 글 하나로 다른 누군가를 몰고 늘어진다. 남 탓은 어느새 개인을 넘어, 사회의 트렌드처럼 되어가고 있다. 물론 세상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공정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예측 어려운 변화 속에서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남 탓으로 돌리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남 탓을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해결책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남 탓은 본인에게도 큰 손해로 돌아온다.

남을 핑계로 대면서 자기 행동이나 결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므로 발전과 성장이 가로막힌다. 또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착각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는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다. 매번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비난하면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리고 주변과 싸움을 벌이게 되므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결국, 남 탓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선택하는 꼴이다. 남 탓 문화가 변해가면 사회적으로도 불신과 갈등이 커진다. 너도나도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가 되면 싸움과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남 탓 문화를 개선하는 열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매스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8	1	2	9	6	1	9	7
6	9	8	1	8	7	1	9	8
2	7	9	1	9	8	8	1	6
1	1	2	9	1	8	9	8	6
9	8	9	8	6	2	7	1	1
8	6	7	9	1	1	1	2	8
9	2	8	6	1	7	1	9	8
7	1	6	9	2	8	9	8	1
1	9	8	1	8	9	6	7	2

8	1	9	8	7	9	2	6
7	2	6	9	1	8	1	9
9	9	8	1	6	2	7	1
1	9	7	1	8	8	6	2
2	8	7	6	9	1	8	1
6	8	1	2	8	1	9	7
9	7	8	2	1	6	9	1
8	1	9	8	9	6	2	7
1	6	2	1	7	9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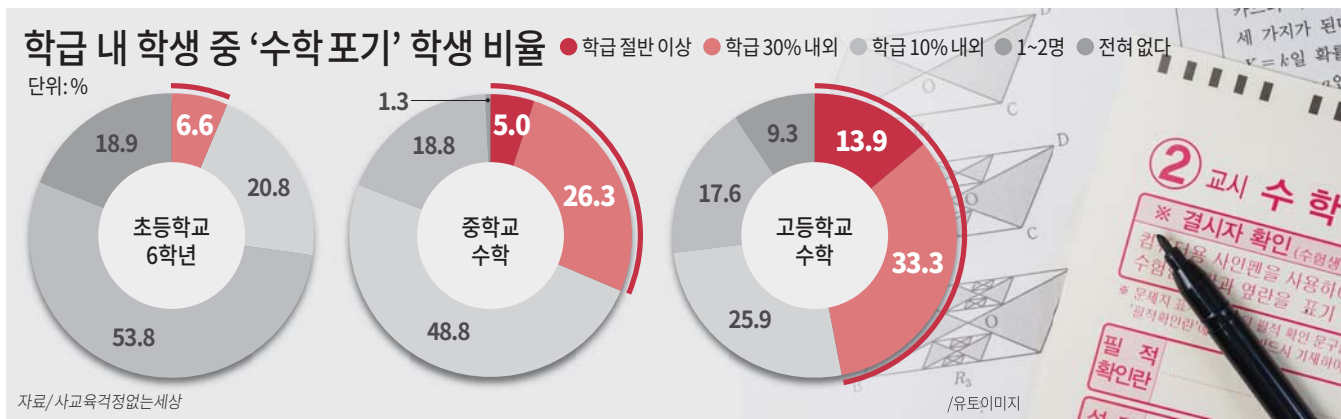
수학 사교육에도 학생 30% “이해 못해”… 교육구조 개선 필요

초·중·고 수포자비율 6~10%p ↑
학생들 포기 이유는 ‘문제 난도’

교사들도 “공교육만으로 어려움”
예방 위해 맞춤형 소그룹 강화해야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선행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의존해도 수학 포기 학생이 줄지 않는 현실이 확인되면서, 수학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적 위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포자 예방을 위해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진단 확대와 평가·수능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7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전국 초·중·고 수학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60곳, 중학교 40곳, 고등학교 60곳 등 총 150개교에서 진행됐으며,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수학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17.9%,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나타난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으로, 중학교 3학년은 2.6배, 고등학교 2학년은 3.3배에 달했다. 특히 2021년 실시된 동일 조사와 비교하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수포자 비율이 약 6~10%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을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학생

들은 ‘문제 난도가 너무 높아서’ (4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교사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 (44.6%)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학생들은 당장의 난이도를, 교사들은 기초학력 부공의 누적 문제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교육 의존은 이미 보편화된 상태다. 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중 32.8%는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가운데 85.9%는 선행학습을 경험했지만, 이들 중 30.3%는 사교육에서 배우

는 선행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통해 수포자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채 학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만으로는 수학 수업과 평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뚜렷해지고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 수학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60.2%) ▲학교 수학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46.3%)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의 70.4%는 수능 길러놓기 대비를 위해 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수포자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학생 간 수준 차이와 학습 무기력, 지도 시간 부족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 교사는 ‘수 개념 부족’ (34.3%)과 ‘흥미·자신감 결여’ (22.1%)를, 중학교 교사는 ‘학생 간 수준 차이’ (33.7%)와 ‘지도 시간 부족’ (25.4%)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기초학력 부족’이 42.3%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수포자 예방을 위해 교사들은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 강화’ (39.0%)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으며,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확대 (23.3%) ▲변별력을 완화된 학교 평가 및 수능 제도 개선 (1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상우 수학교육 혁신센터 연구원은 “수포자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난도 중심 상대평가와 사교육 의존 구조가 만든 결과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평가 제도와 수학교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지역의사제 시행 시 “의대 위해 거주이동” 수원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다변화로 경쟁력 ↑

지원자격 부여 지역으로 이동 응답
‘매우 그렇다’ 28.6%, ‘그렇다’ 41.2%
전형 도입 때 의대 진학 의사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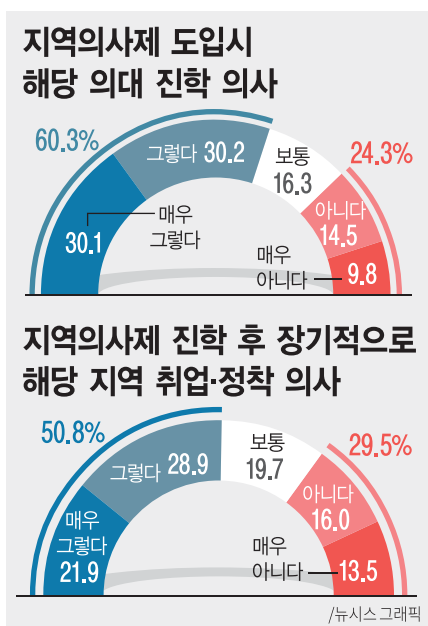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의대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 지역을 옮기려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중·고 수험생 및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확정될 경우 향후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응답이 69.8%에 달했다. ‘매우 그렇다’는 28.6%, ‘그렇다’는 41.2%로,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지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주지 이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지역의사제 의대 진학에 대한 관심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60.3%로 절반을 넘었다. ‘매우 그렇다’는 30.1%, ‘그렇다’는 30.2%였으며, 진학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4.3%였다.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해당 의대가 위치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교에 입학·졸업한 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와 교재비, 기숙사비 등이 지원되며, 졸업 후에는 최소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해진 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 등 강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진학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아서’ (39.6%)와 ‘의사가 되고 싶어서’ (3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등록금·기숙사비 등 혜택 때문에’ (10.5%), ‘지역의사가 된다는 점이 의미 있을 것 같아서’ (8.3%) 순이었다. 지역 의사제의 공공적 취지보다는 입시 경쟁과 진학 전략을 고려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진학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싶

지 않아서’가 40.6%로 가장 많았고, ‘지역의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아서’가 32.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지 않을 것 같아서’ (14.8%) 등의 응답이 나왔다.

지역의사제 진학 이후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의사가 있는지는 질문에는 50.8%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21.9%, ‘그렇다’는 28.9%였으며, ‘아니다’는 29.5%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장기 정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지역의사제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의 1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 미만 (21.5%) ▲30% 미만 (17.8%) 순이었으며, ‘50% 이상’도 10.8%로 나타났다.

의무 복무기간 10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길다’는 응답이 28.0%, ‘짧다’는 응답이 25.8%로 집계됐다.

입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3.8%였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5.5%였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가 정책적으로 확정될 경우, 실제 지역 이동 현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인권 내에서 지역의사제 해당 지역과 비해당 지역 간 이동, 서울권에서 경인권으로의 이동 등 연쇄적 이동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현진 기자

수출업무 3대 간소화, 마케팅 지원

수원시는 미국 관세 인상과 환율 상승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 정책은 수출 업무 3대 간소화와 AI 기반 3대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실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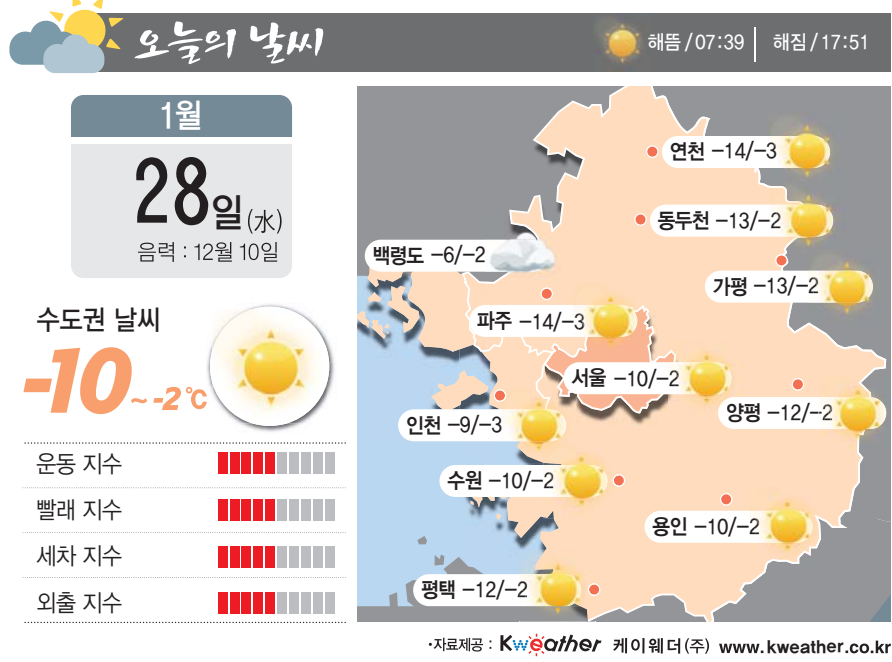
수출대금 결제 간소화 사업은 비자(Visa)와 협력해 상담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기업당 결제 이용료 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한다. 기존 전신환송금(T/T)과 신용장(L/C) 방식은 서류 제출과 중복 은행 절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이번 플랫폼을 활용하면 7종 무역서류 제출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 바이어와의 계약 성사율과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수출 절차 간소화는 EMS를 통한 직배송 지원으로 기존 5단계 수출 과정을 도어 투 도어 방식으로 단축하며, 1건당 2,000kg, 업체당 연 최대 250만 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수출 홍보 간소화는 아리랑 TV 국제방송을 통해 130여 개국에 기업 홍보영상을 송출하며, 2025년에는 12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기업들은 영상 송출 후 해외 문의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고했다.

AI 기반 3대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 대상 AI 홈페이지 구축, AI 무역청을 통한 계약서 해석·바이어 협상·수출 전략 수립 등 21종 업무 자동화, AI 전자 카탈로그 제작을 통한 SNS 및 전자무역청 홍보를 포함한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日다카이치 “北핵보유국” 발언에 日정부 해명…“입장 변화 없어”
/사진 뉴시스
▲베네수 임시대통령, 美 간섭에 불만 표출 “명령 중단해야”

▲中 공업이익, 지난해 1~12월 0.6% 증가…4년 만에 반등
▲12월 日 기업서비스 가격 2.6% ↑ 0.1P 하락…“인건비 등 전가 계속”

▲EU, 2027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 최종 승인…러 “자율성 상실”
▲트럼프 “이란, 미국과의 협상 원해”…美 항모 중동 도착



빙그레
해태 흡수합병
‘승부수’
L1



“스포츠, 관람에서 경험으로 확장... ‘입는 콘텐츠’로 승부”



인터뷰

정 석 원 형지엘리트 상무

스포츠 컬처 브랜드 ‘월비플레이’ 론칭
유니폼서 쌓은 노하우, 팬덤시장 접목

과거 KBO 유니폼에 레트로감성 더해
일상복으로 손색 없는 트렌드 디자인

한국프로야구(KBO)가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기록하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야구장에는 유니폼을 입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됐고, 유명 선수나 콜라보한 유니폼을 구하기 위해 팬들은 줄서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뜨거운 열기의 중심에 50년 역사의 패션 명가 형지엘리트가 있다. 학생복과 기업 유니폼으로 다져온 탄탄한 기술력을 무기로 스포츠 컬처 브랜드 ‘월비플레이(WILLBE PLAY)’를 론칭하고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 한화생명e스포츠, 최강야구, 바르셀로나 등 다양한 스포츠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스포츠 굿즈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형지엘리트 정석원 상무를 만나 형지엘리트의 비전을 들었다.

“국내야구 응원 문화가 ‘관람’에서 ‘경험과 참여’ 중심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니폼과 굿즈를 일상적으로 즐길 시장이 확대될 거라 보고 스포츠 사업을 기획했죠”

2014년 형지엘리트 B2B사업부에 합류한



정석원 형지엘리트 상무

정 상무는 기업체 유니폼 기획·제작 전 과정을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를 스포츠 팬덤 시장에 접목했다. 물론 처음부터 탄탄대로는 아니었다. 사업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며 시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는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봤다”며 “최준호 대표이사 리더십 아래 산업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2020년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 시작 이후 매년 매출이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잭팟을 터뜨렸다. 특히 지난해 KBO와 손잡고 선보인 ‘1982 DDM 프로젝트’는 월비플레이는 과거 구단 IP와 현재 트렌드를 연결해 레트로 감성을 살린 제품군으로 호평받고 있다. 현대 유니콘스, 청보 핀토스, 쌍방울 레이더스 등 사라진 과거 KBO 구단 유니폼을 접목해 만든 옷은 야구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 상무는 KBO 측에 먼저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메이저리그(MLB)나 일본 프로야구(NPB)를 보면 구단의 역사를 존중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가 팬덤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과거 로고를 복각하는 것을 넘어, 구단 지식재산권(IP)이 가진 감성을 현재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해 일상복으로도 손색없는 ‘입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월비플레이의 강점은 철저한 팬덤 분석과 소통에 있다. 정 상무와 팀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은 물론 시즌 중에는 직접 오프라인 매장 판매에 나서며 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롯데 자이언츠의 히트 상품인 ‘떡비 티셔츠’도 원래는 이벤트 증정용이었으나, 팬들의 빗발치는 판매 요청을 반영해 정식 출시하며 대박을 터뜨린 사례다.

영역은 야구를 넘어 e스포츠와 축구 구로도 확장 중이다. 팀원들은 직접 K리그,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FC바르셀로나의 방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FC서울 VS FC바르셀로나’ 팝업 스토어.
/형지엘리트

해외축구, e스포츠를 모두 공부하며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화생명e스포츠와 협업이 대표적이다. 정 상무는 “e스포츠는 구단보다 선수 개인 팬덤이 강하고, 선수들이 장시간 앉아서 경기를 치른다는 특성이 있다”며 “통기성과 활동성, 피로도를 줄이는 기능성 원단 설계에 집중해 정적인 환경에서도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분석·소통으로 팬덤 취향저격 단발성 소비 아닌 계속 찾는 상품 ‘목표’

지난해 FC서울·바르셀로나 팝업 오픈 국내·해외 구단서 협업 러브콜 쇄도 브랜드 전략 본격화...패션 라인 강화

형지엘리트가 가진 40년 이상의 제조 노하우는 월비플레이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단순한 굿즈 제작을 넘어 각 파트 실무자가 소재, 패턴, 봉제, 내구성까지 직접 챙기는 ‘패션 기업’의 DNA가 이식됐기 때문이다. 정 상무는 “팀원 모두가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입히는 옷’이라는 관점에서 품질을 점검한다”며 “단발성 소비가 아닌, 시즌을 넘어 팬들이 계속 찾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구단과 협업하며 겪은 치열한 조율 과정도 털어놨다. 팬, 구단, 사업자를 모

두 만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 상무는 “지난해 FC서울과 FC바르셀로나 팝업스토어 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주체 의견과 요구 사항을 조율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며 ‘과정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기억에 남겼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다. 정 상무는 “형지엘리트의 스포츠 상품화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스포츠 구단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사 브랜드인 ‘월비플레이’ 자체에 대한 입점 및 협업 제안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 상무는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인 덕분”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 축적된 경험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들이야말로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갈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월비플레이는 또 한 번 도약을 준비한다. 정 상무는 “내년은 브랜드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 확대와 패션 라인 강화를 통해 ‘야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스포츠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야구를 사랑하는 팬은 물론 야구를 잘 모르는 고객에게도 매력적인 ‘스포츠를 입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시즌을 향해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월비플레이가 선보이는 1982 DDM 프로젝트 속 태평양 돌핀스와 청보 핀토스 의류.



▲‘유망주→에이스’ 급성장한 NC 김주원...감독도, 주장도 “올해가 중요해”
/사진 뉴시스
▲밀라노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2월5일 개관 ‘K-컬처 알린다’

▲캠프 첫 불펜피칭부터 페이스 올린 LG 손주영 “아프지 않는 게 우선”
▲손흥민 대체자로 이강인 원하는 토트넘...PSG는 요지부동

▲‘LPGA 루키’ 황유민·이동은, 경쟁 예고...“US 오픈 우승 궁극해”
▲샌프란시스코, ‘골드글러브’ 베이더 영입...이정후, 코너 이동 가능성 ↑